

문화 서울

2025 10 VOL. 224

문화+서울





장애예술기획전 <The Sensory Tale 감각의 서사>
2025년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 입주작가
곽요한·김승현·김은정·위혜승·윤하균·
허점의 예술세계를 조명하는 기획전이
열린다. 신체와 감정, 시간과 상처가
작품에 남긴 '감각의 기록'을 통해
관람객이 존재의 의미를 사유하도록
이끄는 전시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도슨트 해설이 마련된다.
10월 17일부터 11월 6일까지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제7전시실
02.423.6675



마스터피스 토크×연희문학창작촌
원로예술가가 들려주는 예술 인생 <마스터피스 토크>는 원로 예술인의 생애와 작품 세계를 전달하는 관객
소통형 프로젝트로, 10월부터 12월까지 서울연극센터·서울무용센터·금천예술공장·연희문학창작촌·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강북과 서초에서 시민과 만난다. 오랜 시간 예술로 삶을 빛어낸 원로 예술인의
결작 인생을 공연과 대담 등 다양한 형태로 만날 수 있다. 그 첫 번째 순서로 문학 분야의 '페이지 위의 삶'이
10월 29일 오후 1시 연희문학창작촌 야외극장 열림에서 진행된다. 그 첫 번째 행사에 관한 문의 사항은
연희문학창작촌(02.324.4602)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립오페라단 <세비야의 이발사>
국립오페라단이 마련한 킨더오페라
<세비야의 이발사>가 강북구 학생들을
위해 찾아온다. 전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희극 오페라를 어린이를 위한 버전으로
선보이며, 미래 세대가 문화예술 애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획된 무대다.
강북구 관내 초·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전석 무료로 진행되며, 자세한 정보는
강북문화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10월 30일과 31일 | 강북문화예술회관
강북소나무홀 | 02.994.8503



<ONDERGROUND>
청년 작가를 위해 마련된 서리풀청년아트갤러리에서는 김주호·오지형 작가의 공동
기획 전시가 열리고 있다. '재감각'과 '재위치'를 탐구하며 물질·비물질적 접촉을 시청각
작품으로 풀어내는 체험형 전시다.
10월 18일부터 11월 8일까지 | 서리풀청년아트갤러리 | 02.3477.2074



<츄잉츄잉 아케이드 87>
서울문화재단 신당창작아케이드와
서울공예박물관이 협력해 진행하는
'공예동행@쇼윈도' 다섯 번째 전시로
김리호·신예원 작가가 협력한 <츄잉츄잉
아케이드 87>이 열린다. 컨셉추얼
디자인을 선보이고 있는 김리호와 산업
재료의 공예·조형적 가능성을 실험하는
아트 퍼니처를 선보이는 신예원
두 사람이 함께 선보일 작품이 기대된다.
10월 22일부터 11월 16일까지
서울공예박물관 전시3동 1층 쇼윈도갤러리
02.2232.8831



청년예술청 개관 5주년 기획 전시<침입자들 Infiltrators>
'도시의 경계와 인프라를 가로지르는 청년예술가들의 전술'을 주제로 청년예술청 개관
5주년을 기념하는 전시가 진행되고 있다. 유지원 큐레이터와 협업하고, 청년 작가
곽소진·김지수·이동현·이주연·이하령이 설치·영상·회화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작품을
선보인다. 전시 마지막 날에는 아티스트 토크가 진행될 예정이다.
10월 26일까지 | 청년예술청 화이트갤러리 | 02.362.9742



서울예술인지원센터 아카데미 <STAND-UP>
예술을 업으로 삼는 모든 이들을 위해 서울예술인지원센터가 마련한 프로그램이 11월까지 계속된다. 10월에는
현직 문화부 기자에게 배우는 언론홍보(13일), 예술인을 위한 최소한의 회계·세무 상식(17일), 무엇도 대체할
수 없는 글쓰기의 의미에 관한 임경선 작가의 강연(23일), 스토리가 실종된 시대에 이야기를 빛는 스토리
워크숍(30일) 등이 준비돼 있다. 모든 프로그램은 무료이며, 일부는 일반 시민도 수강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문화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5 관악강감찬축제
관악구를 대표하는 브랜드 축제인
관악강감찬축제가 10월 17일부터
19일까지 낙성대공원에서 열린다. 과거
고려의 역사가 깃든 동네에서 오늘날의
문화예술이 어우러진 시민 강감찬 잔치가
될 예정. 17일 강감찬 장군 추모 제향을
 시작으로 심어송라이터 신예 발굴 무대가
펼쳐지며, 18일에는 시민풍류제(시민
가요제)와 주제 공연, 불꽃놀이가
진행된다. 이 외에 21개 동
주민이 함께 만드는 참여형
부스가 설치되고 강감찬
장군의 전술 전략을 즐기는
팝업 놀이터 등이 마련된다.

2025 금천하모니축제

금천구를 대표하는 금천하모니축제가 열린다. '금천 30주년, 오늘의 어울림 내일의 더울림'이라는 주제로 국립합창단 공연을 포함해, 구민의 목소리를 하나로 전하는 합창 공연이 화합과 희망을 노래한다. 더불어 축하공연으로 엔플라잉·이승환밴드의 화려한 무대가 금천구를 열기로 가득 채울 예정이다. 사전 행사 '금천하모니워크'는 10월 11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되며, 본 행사는 18일과 19일 금천구청과 안양천 다목적 광장 일대에서 펼쳐진다.



〈노래로 꽃피운 소설의 시흔〉

1925년 처음 간행된 김소월의 시집 『진달래꽃』의 100주년을 기념하고자 〈소월을 노래하다〉라는 제목의 무대가 준비됐다. 성동구민회관으로 시작해 리모델링을 거쳐 소월아트홀로 옷을 갈아입은 공연장의 의미를 더할 것이다. 소프라노 박정원을 비롯한 성악가 네 사람이 김소월의 삶과 시를 가곡으로 노래하며, 음악학자 강서희의 해설이 더해진다.

10월15일 | 소월아트홀 | 02.2204.7574



2025 서울국제공연예술제

올해 25회를 맞은 공연예술 축제인 서울국제공연예술제가 10월 16일부터 11월 9일까지 국립극장, 세종문화회관, 아르코, 대학로예술극장 등지에서 열린다. 올해 주제는 '업힘과 마찰'로, 다른 관점과 형식이 부딪히는 지점에서 새로움을 발견하려는 문제의식을 담고자 했다. 연극·무용·다원예술 등 장르를 중심으로 큐레이션한 작품 22편과 더불어 포럼·워크숍·창작랩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2025 신나는 광진-춤을 사랑하는 모두를 위한 생활예술 축제 '신나는 광진-춤'이 10월 19일 오후 1시 서울어린이대공원 열린무대에서 진행된다. 광진구민은 물론, 장르와 나이를 불문하고 춤을 사랑하는 이라면 누구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10월의 축제. 다양한 참여 행사만 아니라 지역에서 활동하는 댄스팀이 실력을 발휘하는 시간도 준비돼 있다.

가을 궁중문화축전

국내 최대 국가유산 축제인 궁중문화축전이 가을을 맞아 돌아왔다. 특히 세대와 국적을 넘어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참여의 장을 마련했다. 어린이들이 황실 교육을 체험할 수 있는 덕수궁 '준명당 어린이 학교', 청소년을 위한 탐험형 체험 프로그램 '종묘 건축탐험대', 60세 이상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전통 화채 체험 프로그램 '동궐 장원서' 등이다. 외국인을 위한 경복궁 '한복 연향'과 창덕궁 '아침 궁을 깨우다' 등 프로그램도 활짝 문을 연다. 언제나 인기리에 진행되는 각종 해설 프로그램과 인문학 콘서트, 야간 미디어아트 프로그램 등도 준비돼 있으니 궁궐에서 보내는 가을을 놓치지 말 것.

10월8일부터12일까지 | 경복궁·창덕궁·덕수궁·창경궁·종묘 | 1522.2295





〈이불: 1998년 이후〉

한국 현대미술을 대표하는 작가 이불의 대규모 서베이 전시 〈이불: 1998년 이후〉가 리움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다. 1990년대 후반부터 현재까지 이어져온 작가의 주요 작업을 조망하며, 조각·대형 설치·평면·드로잉·모형 등 150여 점이 전시된다. 그간 해외 주요 미술관에서는 대규모 개인전이, 국내에서는 프로젝트 규모의 전시만 열린 것을 아쉬워 한 관람객이라면 작가의 대표작부터 지속적 탐구의 연장선상에서 발표된 작품을 만날 수 있으니 기대해도 좋을 것이다. 홍콩 M+와 공동 기획한 이번 전시는 이듬해 3월 국제 순회로 이어진다.

2026년 1월 4일까지 | 리움미술관 블랙박스·그라운드갤러리 | 02.2014.6900

이불, 1998년 이후, 전시 전경, 사진 전병철, 리움미술관 제공



〈안티-셀프: 나에게 반하여〉

아르코미술관은 '나는 누구인가'라는 본질적이고 자기 반영적인 물음을 던지며 중견 작가의 매체, 시각언어, 방법론에 주목하는 하이라이트 전시 〈안티-셀프: 나에게 반하여〉를 개최한다. 참여 작가는 강홍구, 김나영&그레고리 마스, 김옥선, 김지평, 하차연 등 5명(팀)이며, 작가 스스로에 대한 비평을 통해 예술세계를 개진하는 이들의 궤적을 살펴본다. 예술가의 자기진술, 자기비평에 관심을 갖고 있다면 흥미롭게 볼 만한 전시가 될 것이다.

10월 26일까지 | 아르코미술관 제1·2전시실 | 02.760.4607

안티-셀프: 나에게 반하여, 전시 전경, 아르코미술관 제공

이달, 주목할 서울의 문화예술 소식

SCENE

공연예술로 물든 서울의 가을
서울어템페스타

10

탐색
파리가을축제로 비춰 보는
도시와 예술

12

대화
광장의 가을밤을 공연으로 물들이는
서울어템페스타 구성감독 고선웅

16

콘텐츠
공연예술, 서울을 잇다
서울어템페스타 40일의 여정

18

큐레이션
열다섯 가지 키워드로 안내하는
서울어템페스타



COVER STORY

서울거리예술축제2025

민족 대명절 추석과 함께 도심이
거대한 예술 무대로 변신하는 단 사흘.
서울거리예술축제와 함께 올해 새로
출범한 서울의 가을 공연예술 시즌 브랜드,
서울어템페스타를 소개한다.

26

예술가의 진심
시대와 함께 성장한 이루다의 무대

32

예술인 아카이브
송희지

34

예술인 아카이브
윤예은

36

페이퍼로그
노들섬운영팀 김상민
변화는 아주 작은 차이에서부터

38

인사이드
청계천을 따라 예술로 걷는 길
서울거리예술축제 2025

42

인사이드
계절이 건넌 예술 인사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용산 가을 시즌

44

서울 로컬 리포트
흰 도화지 위에
강북의 문화를 함께 그리는
서강석 강북문화재단 대표이사

48

트렌드
'케데헌' 돌풍, K-콘텐츠를
다시 생각하다

50

해와는 지금
축제가 끝난 뒤,
무대세트의 운명은

COLUMN

54

현대음악에 주파수를 맞추면
새소리와 영원 사이에서,
메시앙의 아름다운 불가능성

55

동시대적 고전 읽기
우리 시대에 끌어올린 '근원적 비극'

58

스크린 너머의 세상
너무 시끄러운 고독

60

춤, 이면의 몸짓
몸에서 몸으로 전해진 기억의 잔향

62

컨트리뷰터

ASSOCIATED

FOCUS

서울문화재단 [문화+서울]

발행인 송형중 편집 총괄 이주영 기획·편집 나혜린 사진 (재)서울문화재단 편집·디자인 designikki 인쇄·제책 더프레스(주)

발행처 (재)서울문화재단 A. 서울시 동대문구 청계천로 517 T. 02.3290.7124 F. 02.6008.7347 W. www.sfac.or.kr E. monthly@sfac.or.kr

ISSN 1739-774X 웹진 www.sfac.or.kr/magazine 인스타그램 @monthly_sfac 등록번호 동대문, 라00036 발행일 2025년 10월 1일

서울문화재단에서 발간하는 월간지 [문화+서울]은 서울에 숨어 있는 문화 욕구와 정보가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예술가의 창조적 힘과 시민의 일상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고자 합니다.

[문화+서울]에 실린 글과 사진은 (재)서울문화재단의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없으며, 모든 기사는 모두 필자 개인의 의견을 따른 것입니다.

[문화+서울]은 시각장애인과 저시력자, 읽기에 어려움이 있는 독자를 위해 데이지(DAISY) 파일을 제공합니다.

공연예술로 물든 서울의 가을 서울어텀페스타

10월 4일부터 11월 12일까지 40일간 서울 시내 주요 공연장과
도시 곳곳에서 117편의 공연과 축제가 펼쳐진다. 높고 푸른 하늘,
선선한 바람이 스며들어 공연을 즐기기에 가장 좋은 계절, 흠어져
있던 가을의 무대를 하나로 이은 서울어텀페스타가 찾아온다.

도심권

용산/종로/중구

축제 22편

공연 38편

연극 22편

무용 11편

음악 5편

전통 20편

복합 2편

서북권

마포/서대문/은평

축제 4편

공연 10편

연극 4편

무용 4편

음악 5편

전통 1편

동북권

강북/광진/노원/도봉/
동대문/성동/성북/중랑

축제 6편

공연 10편

연극 8편

무용 2편

음악 3편

전통 1편

복합 2편

서남권

강서/관악/구로/금천/
동작/양천/영등포

축제 2편

공연 3편

연극 2편

음악 1편

전통 1편

복합 1편

동남권

강남/강동/서초/송파

축제 5편

공연 17편

연극 2편

무용 2편

음악 13편

전통 5편

©Seoul International Music Festival

파리가을축제로 비춰 보는 도시와 예술

서울에서 올가을 펼쳐지는 공연과 축제를 하나로 연결하는 서울어텀페스타가 출범한다. 50년 넘게 시민의 가을을 책임져온 파리가을축제처럼.



서울문화재단이 올가을 서울에서 열리는 공연과 축제를 하나로 잇는 공연예술 시즌 브랜드 ‘서울어텀페스타Seoul Autumn Festa’를 출범한다. 40일간 서울의 주요 공연장과 서울광장·청계천·DDP 등에서 117편의 공연과 축제가 펼쳐진다. 서울문화재단은 내년에는 70일간 150여 편, 내후년에는 100일간 200여 편으로 기간과 공연 및 축제의 수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해외 공연 초청 및 공연예술의 국제 창작 플랫폼으로 기능하겠다는 포부다.

서울문화재단이 서울어텀페스타의 벤치마킹 대상으로 삼은 것은 프랑스의 파리가을축제Festival d’Automne à Paris다.

파리가을축제는 프랑스에서 여름에 열리는 아비뇽 페스티벌과 쌍벽을 이루는 공연예술 중심 축제로 손꼽힌다. 하지만 규모와 명성에 비해 우리나라에는 그다지 알려지지 않았다.

파리가을축제는 거점 공연장 없이 파리시립극장Théâtre de la Ville을 비롯해 파리 시내·외에 있는 다양한 공공 극장과 협력해 페스티벌을 치르는 것이 특징이다. 이 때문에 파리가을축제의 프로그램이 공연장의 시즌에 포함되기도 한다. 파리 시내는 물론 수도권Île-de-France 전역에 공연장이 흩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에 걸친 장기간

열리기 때문에 아비뇽 페스티벌 같은 떠들썩한 축제 느낌은 없지만 파리의 일상에 녹아 있다고 할 수 있다. 대체로 60개 장소에서 80편 이상의 공연(500회)이 열리며, 20만 명 넘는 사람들이 참여한다. 올해는 9월 4일부터 연말까지 25편의 신작을 포함한 83편의 공연이 열린다.

파리가을축제는 조르주蓬피두 대통령(1969~1974년 재임) 집권 시기인 1972년 시작했다.蓬피두 대통령은 당시 현대예술 분야에서 급부상하는 미국 뉴욕이나 영국 런던을 의식해 파리를 세계 문화 중심지로 재정립하고자 했다.그 일환으로 공연예술축제 설립이 추진됐고, 미셸 기가 파리가을축제 창설을 이끌었다.

미셸 기는 부유한 사업가 출신으로 저명한 근현대 미술 수집가이자 무용과 오페라 애호가였다. 파리국제무용제의 고문이던 그는 폴 테일러·머스커닝햄·얼윈 니콜라이·트와일라 타프 등 미국 현대무용가를 프랑스에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했다.그는 1974년부터 1976년 사이 발레리 지스카르 데스탱 대통령 정부에서는 문화부 장관을 역임하기도 했다.

↓ 올해 파리가을축제에서 공연한 윌리엄 켄트리지의 작품 〈Faustus in Africal〉 ©Fiona MacPherson



국경을 뛰어넘는 문화 교류의 장

앞서 파리에는 유네스코 산하 국제극예술협회International Theatre Institute, ITI가 주최하던 세계연극제Theatre of Nations가 1957년 시작돼 세계 각국의 연극을 선보였다. 당시 서구에서 처음으로 동독의 베를리니 앙상블, 소련의 모스크바 예술극장, 중국의 경극, 일본의 가부키 등이 소개되는 등 세계 연극계의 교류에 큰 역할을 했다. 하지만 세계연극제는 1960년대부터 위축되더니 1971년을 끝으로 중단됐다. 이 때문에 파리가을축제는 파리에서 열린던 세계연극제 같은 위상을 가지기를 기대받았다.

그렇다고 해서 파리가을축제가 단순히 연극제를 표방하는 것은 아니다. 창설부터 연극·무용·오페라·음악 등 여러 장르를 다루는 종합 축제를 지향했다.미셸 기는 “파리가을축제는 국경을 뛰어넘어 문화 교류의 장뻘을 이루고, 창의적인 작품을 접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출발했다”고 말한 바 있다. 시간이 흐르면서 파리가을축제는 조형예술·영화·현대문학 등으로도 스펙트럼이 확장됐으며, 장르의 경계를 넘나드는 융복합을 중시하게 됐다. 이를 토대로 세계 현대예술 분야의 교류와 실험적 창작을 주도하는 플랫폼으로서 자리매김했다.

파리가을축제는 미셸 기가 1990년 별세한 이후 알랭 크롬베크가 총감독을 이어받아 1993년부터 2009년까지 이끌었다. 크롬베크는 미셸 기가 문화부 장관을 할 때 파리가을축제 총감독을 대신한 바 있으며, 1985년부터 1992년까지 아비뇽 페스티벌 예술감독을 역임한 인물이다. 그리고 크롬베크의 별세 이후 2009년과 2010년엔 연극과 무용 분야 예술감독인 마리 폴린과 음악 분야 예술감독인 조세핀 마르코비츠가 공동으로 총감독 대행을 맡았다.

이어 연출가 에마뉘엘 드마르시 모타가 2011년 5월 취임해 지금까지 총감독을 맡고 있다. 에마뉘엘 드마르시 모타는 프랑스 연극계의 총아로, 2008년부터 파리시립극장 극장장도 맡고 있다. 50년 넘는 역사에도 불구하고 총감독이 겨우 세 명이라는 점은

파리가을축제의 정체성과 운영의 안정성을 보여준다. 우리나라에서 수많은 축제가 만들어졌다가 지자체 단체장 교체를 비롯한 여러 이유로 성격이나 이름이 바뀌는가 하면, 아예 폐지되는 사례가 허다한 것과 비교된다.

파리가을축제는 1970년대엔 미국 현대예술을 대표하는 예술가들을 유럽에 꾸준히 소개했다. 작곡가 존 케이지, 안무가 머스커닝햄, 작곡가 겸 보컬리스트 메러디스 몽크 등 미국 포스트모더니즘 예술가와 조지 발란신이 이끄는 뉴욕시티발레 등이 대표적이다. 그런가 하면 프랑스 작곡가 피에르 불레즈와 프랑스에 거주하는 아일랜드 극작가 사뮈엘 베케트도 파리가을축제가 사랑한 예술가였다.

이후 파리가을축제는 폴란드 출신으로 20세기 연극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연출가 타데우시 칸토르 등 동구권 예술가를 꾸준히 소개했다. 이와 함께 일본·중국·이란 등 서구에 낯선 아시아의 현대예술은 물론, 전통예술도 선보이는 세계 공연예술 교류의 창구로 자리매김했다. 한국도 2002년 파리가을축제의 주빈국으로 국립국악원의 궁중 및 민속무용 공연을 비롯해 사물놀이, 판소리 다섯 마당 완창, 은율탈춤·하회별신굿탈놀이, 대동궁, 인형극 등을 선보인 바 있다. 그리고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를 맞아 2015년 파리가을축제는 국가무형유산 서해안배연신굿 및 대동궁 예능보유자 김금화, 판소리 명창 안숙선, 현대음악 작곡가 진은숙, 그리고 현대무용가 안은미 등 한국 여성 예술가 네 명을 초청했다.

더욱 실험적이고, 더욱 대중과 가깝게

파리가을축제는 2012년 에마뉘엘 드마르시 모타 총감독 취임 이후 새로운 변화를 추구했다. 축제가 주목하는 젊은 예술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축제와 대중의 거리를 좀 더 좁히는 작업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이다. 관객은 실험을 반복하며 성장하는 젊은 예술가들의 창작 활동을 목격하는 기회를 얻게 된다. 이를 위해 파리가을축제는 파리 시내에 집중돼 있던 공연의 범위를 수도권으로 확장했다. 이와 함께 청소년과 장애인을 위한 할인 제도를 시행하는 한편 학교와 연계한 워크숍을 시행하는 등 젊은 층을 적극적으로 유입하고 있다.

또한 책임 있는 페스티벌을 표방한 파리가을축제는 재공연 기능성과 유럽 투어를 염두에 둔 작품을 우선해 프로그래밍하고 있다. 유통을 통한 생태·경제적 효율성을 추구한 셈이다. 실제로 2015년 초청된 안무가 안은미는 〈조상님께 바치는 댄스〉,〈사심없는 댄스〉,〈아저씨를 위한 무책임한 댄스〉등 ‘몸의 댄스’ 3부작을 파리시립극장에서 선보여 호평을 받았고, 이는 활발한 유럽 투어로 이어졌다.

또 다른 중요한 변화는 현대 예술계에 큰 영향을 끼친 거장의 작품을 집중적으로 선보이는 기획 프로그램 ‘초상Portraits’을 신설한 것이다. 프랑스 안무가 마기 마랭을 시작으로 미국 연출가 로버트 윌슨, 이탈리아 연출가 로메오 카스탈루치와 이탈리아 작곡가 루이지 노노 등 2012년부터 매년 적게는 한 명, 많게는 세 명의 예술가가 선정됐다. 한국 작곡가 진은숙도 2015년 초청돼 다양한 작품을 선보였다.

‘초상’은 거장의 대표작과 신작을 통해 창작 여정과 예술 세계를 소개해 관객에게 폭넓은 이해를 제공하는 한편, 축제의 국제적 위상과 실험성을 상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올해는 프랑스 안무가 프랑수아 세뇨와 미국 앙상블 잭 파르렛이 선정됐다. 두 예술가 외에 올해 파리가을축제는 윌리엄 켄트리지·크리스티앙 리조·포스탱 린예콜라·나나 라이스네 등 세계적인 거장을 비롯한 다양한 배경의 예술가가 관객을 만난다.

올해 출범한 서울어텀페스타가 파리가을축제처럼 될 수 있을까. 파리가을축제의 작품은 개막 전부터 매진되는 경우가 많다. 반세기 넘게 지속되며 현대예술의 방향을 제시해온 파리가을축제에 대한 높은 신뢰도 덕분이다. 그 이름은 하나의 브랜드이며, 파리의 가을을 상징한다. 전 세계적으로 K-컬처에 주목하는 요즘, 그 바탕이 되는 K-기초예술을 내세운 서울어텀페스타의 등장은 그 자체로 반갑다. 서울어텀페스타는 서울시민에게 K-기초예술을 일상의 감각으로 느끼게 만드는 한편, 관광객에게 서울의 매력을 각인시키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서울의 가을을 대표하는 축제가 되려면 파리가을축제처럼 정체성을 가지고 지속되는 것이 필수다.

광장의 가을밤을 공연으로 물들이는 서울어텀페스타 구성감독 고선웅

우리시대의 연출가로 꼽히는 고선웅이서울어텀페스타의시작을 연다.공공에서 민간으로 이제 막 돌아온 그에게 이번 역할은 그만큼 의미가 있다.

지난3년간서울시극단을 이끈 연출가 고선웅이 최근 예술감독 직을 내려놨다.자신이 만든 극단 ‘극공작소 마방진’ 20주년을 제대로 자축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민간 예술가 신분으로 돌아와 처음 선보이는 작업이 공공 행사다. 서울문화재단이 올해 야심 차게 준비하고 있는 서울어텀페스타 개막 공연의 구성감독을 맡은 것. 10월 4일 서울광장에서 8개 팀 150여 명의 예술가들이 들고 온 각자의 공연을 하나의 퍼포먼스로 잘 꿰어서 큰 그림을 그리는 역할이다.

서울어텀페스타는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성공으로 서울이 더없이 ‘핫’해진 지금, 예술도시로서의 매력까지 어필하기 위해 론칭한 브랜드다. 에든버러 페스티벌이나 아비뇽 페스티벌·파리가을축제처럼 도시의 간판으로 내세울 유서 깊은 공연예술 축제로 발전해나가겠다는 포부로, ‘공연예술, 서울을 잇다’라는 슬로건 아래 10월 4일부터 40일간 서울에서 벌어지는 117편 공연과 축제 띄우기에 나섰다. 가을에 열리는 이미 수많은 예술 축제가 있지만, ‘민간 주도형’을 내세운 것이 다르다. 공공이 주도하는 축제는 정권에 따라 부침을 겪을 수밖에 없으니, 아예 민간이 주체가 돼 이끌게 함으로써 독립성을 유지하겠다는 취지다. 서울시극단 예술감독에서 민간 예술가로 막 돌아온 고선웅에게 개막 행사의

밑그림을 그리게 한 것도 그런 상징성이 엿보인다.

민간으로 돌아오자마자 공공 행사를 맡으셨네요.
서울문화재단이 처음 기획한 행사라는데 의도가 좋잖아요. 행사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픈 마음에 동참하게 됐습니다. 이제 저도 공연예술 융성에 대한 막중한 책임을 느낄 나이가 됐거든요.

‘구성감독’이란 명칭이 낯선데요.
직접 연출을 맡을 여유는 없지만 여러 프로그램이 있으니, 순서를 안배하고 굴곡을 만드는 역할이 필요하겠더군요. 어떤 팀이 언제 들어오면 주목도가 높아질지 고민하는 일이고, 연출은 별도로 시나리오를 직접 실행에 옮겨서 미장센을 만들겠죠. 광장이 열려 있으니 무대도 여기저기 만들어 다양한 시점을 가질 수 있도록 해 보려고 해요.

민간 중심이란 취지가 개막 행사에도 반영될까요.
‘공연예술, 서울을 잇다’라는 테마에 맞춰서 서로 다른 성격의 공연을 격조 있게 보여드리려고 해요.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세대를 포괄할 수 있는 열린 개막식으로 만들고 있어요. 서울어린이썬타데,





서울시소년소녀합창단부터 연극 배우 박정자 선생님도 섭외했죠. 역동성을 보여주고자 타고의 전통 공연과 이루다 블랙토의 무대도 준비하고 있고요. 오페라나 발레의 한 장면 같은, 실제 축제 기간에 열리는 공연의 맛보기 순서도 있죠. 40일 가까이 공연예술 축제가 벌어진다는 걸 천명하고 알리는 고지 효과가 있어야 하니까요.

공연 애호 관객보다 일반 시민의 접근성을 고려해야겠네요. 공연이란 게 꼭 관객을 깜깜한 곳에 가둬놓고 휴대전화 전원 끄고 엄숙하게 있으라고 할 필요는 없잖아요. 가을날의 광장이라는 콘셉트에 물 흐르듯 녹아드는 편안함을 추구합니다. 물론 공연의 퀄리티가 있어야겠지만 긴장감이 없었으면 해요. 오페라 한 자락이 우연히 빌딩 사이로 울려 퍼지면 극장에서 듣는 것보다 더 좋게 들리지 않나요. 호기심이 생기고 공연을 보러 가고 싶어지도록 하는 그 자체에 의미를 두고 있어요. 중간쯤 분위기가 좋을 때 시장님도 나와서 ‘축제 보러 오라’고 한말씀 하실 테지만, 굳이 격식을 차려서 한다면 어울리지 않겠죠. 사진이고 영상이고 다 찍을 수 있고 취식도 가능하게 하고 싶어요. 광장에 왔는데 무슨 권리로 막겠어요.

올해 출범한 서울어텀페스타는 브랜딩과 홍보에 힘을 쓰는 듯한데요. 첫발을 내디뎠다는 것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봐요. 공연은 보기 전엔 알 수가 없거든요. 드라마나 영화는 티저나 예고편이 있지만, 공연은 그걸 만들 수 있을 때 이미 막이 올라가 있으니 홍보가 더 절실해요. 혼자 공연하는 것보다 페스티벌 시즌이 되면 주목도가 더 생기고요. 축제라고 하면 해외에서도 많이 보러 올 테니, 권장할 만한 시도라 생각해요.

파리가을축제를 비롯해 유럽의 유명 페스티벌을 본보기 삼은 축제인데, 예술가로서 바라는 점도 있겠죠. 그쪽에선 한 사람이 예술감독 직을 수십 년간 하면서 중장기 계획을 세워 진행하는데, 당장 우리는 그런 구조가 아니니까요. 행사도 비극 주간, 코미디 주간, 어쿠스틱 주간… 이런 식으로 큐레이션을 해서 모객하면 더 잘되지

않을까요.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큐레이션 하는 프로그래머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어야 통찰력도 생기고 흐름도 파악할 텐데, 한국은 공공기관장의 임기가 정해져있으니, 긴 호흡으로 결과물을 준비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죠.

“연극인은 전부 공동체”

그런데 정작 본인은 서울시극단 예술감독 연임을 고사했다. 직접 연출한 〈통소소리〉로 올해 백상예술대상을 받는 등 3년간 나름의 성과도 냈다. 스타 연출가의 존재감으로 서울시극단의 인지도도 부쩍 달라졌다. “스스로는 연극성을 회복하려 노력했다고 생각해요. 연극은 재밌고 쉽고 감동적이어야 한다는 게 제가 생각하는 연극성이죠. 공공 극단이 하는 연극은 어렵고 진지한 것이라는 느낌을 없애고 싶었어요. 연극이 어려운 예술로 느껴지면 관객과 멀어지거든요. 연극 한 편에 힘들고 지치면 극장에 다시 오기가 꺼려지죠. 영화는 그렇지 않은데, 희한하게 연극은 한번 실망하면 연극 자체를 기피하게 돼요. 그래서 연극인은 공동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다 같이 공연을 잘 만들어야 하는 거죠.”

굳이 야전으로 돌아간 이유라면요. 마방진이 20주년을 맞이했으니 제겐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내가 만든 극단에서 늙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의리가 먼저죠. 20주년이 뭐 대수냐는 말도 많이 들었어요. 나는 치열하게 해왔는데 20주년을 기념하지 않는다는 건 이해가 안 돼요. 이번에 잘해서 개런티도 많이 주고, 부채의식을 갚고 싶은 거예요.

20주년 기념작은 뭔가요. 내년 라인업이 전부 기념작이죠. 〈칼로막베스〉, 〈들소의 달〉, 〈홍도〉 같은 대표작을 거의 10년 넘게 공연하지 않아서 보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아요. 〈푸르른 날에〉도 하고 싶는데 극장 컨디션 때문에 미정이고, 신작도 하나 만들려고 해요. 3월에 〈칼로막베스〉부터 시작하는데, 다음 달부터 칼싸움 연습을 시작할 거예요. 검도 기본이 없으면 태가 안 나오고, 그게 안 되면 본질이 흐려지거든요. 막베스 역 호산이 초연 당시에 30대였는데, 이제 50대가 됐어요. 검도도 5단이 되고 나이도 먹었으니 더

포스가 생겨서 잔뜩 기대하고 있어요. 마방진 20주년을 다 잘될 것 같아요. 우리 굿즈도 만들 겁니다.(웃음)

순수연극으로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이것도 축제잖아요. 20주년을 계기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싶어요. 일단 자립하겠다는 의지로 합니다. 연극을 한다는 게 비생산적인 구조지만, 그걸 인정하면서 패배적으로 있고 싶진 않아요. 우리 작품들이 다 상도 받고 잘된 작품이거든요. ‘뽕꾸’ 안 나도록 도전해보려고 해요. 외부 배우도 좀 섭외하고, 홍보 마케팅도 열심히 해서 흥행하는 게 목표입니다.

“한강 자체가 공연예술의 자원”

서울문화재단은 올해를 시작으로 해외 공연·축제와의 활발한 교류가 가능한 ‘글로벌 플랫폼’으로 단계적 발전을 모색하고 있다. 53년 역사의 파리가을축제 총감독 에마뉘엘 드마르시 모타Emmanuel Demarcy-Mota가 서울어텀페스타 자문위원으로 합류하고, 11월 4일 ‘서울에서 세계가 함께 이야기하는 예술과 미래’라는 주제로 제1회 서울국제예술포럼SAFT도 열린다. 내년에는 10개국 해외 작품 초청과 국내 작품의 해외 유통을 시작한다는 계획도 있다.

K-컬처 시대에 서울이 주목받고 있는데, 공연으로 서울을 다뤄볼 생각은 없나요. 한강이라는 공간 자체가 무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수변 무대를 만들어놓고 풍광과 어울리는 연극이나 오페라·발레를 하면 멋지지 않을까요. 물에 객석을 띄워서 강 위에서 보게 하는 것도 운치 있을 것 같네요. 물론 미장센을 잘 만들 수 있는 조명이나 음향 장비도 잘 설치해야겠죠.

서울어텀페스타가 도시의 공연예술 생태계에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올 수 있을까요.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면 계속 진화할 겁니다. 혹시라도 이번에 성과가 안 좋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문제를 보강해가면 좋겠어요. 당리당락을 초월해 서울의 브랜드로 자리 잡게 한다는 의지로 새로운 시도를 해나가야 유럽처럼 명성 있는 축제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무엇보다 포기하지 않고 지속해나가는 게 중요하죠.

공연예술, 서울을 잇다 서울어텀페스타 40일의 여정

서울의 가을을 가득 채울 공연과 축제의 장 ‘서울어텀페스타’.
그 첫 발걸음을 내딛는 현장에서 40일간의 여정을 미리 만나보자.

높고 푸른 하늘, 선선한 바람이 스며드는 계절. 사계절 가운데 공연을 즐기기에 가장 좋은 때를 꼽으라면 단연 가을일 것이다. 특히 서울의 가을은 도심 곳곳이 공연과 축제로 물드는 시간이다. 올해는 그 풍경이 한층 더 특별해진다. 흩어져 있던 가을의 무대를 하나로 이은 서울어텀페스타가 첫발을 내딛기 때문이다.

서울어텀페스타는 가을철 서울에서 열리는 순수예술 공연과 축제를 하나로 모은 공연예술 시즌 브랜드다. 출범 첫해인 올해는 ‘공연예술, 서울을 잇다’라는 슬로건 아래 오는 10월 4일부터 11월 12일까지 40일간 서울 시내 주요 공연장과 서울광장·청계천·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등지에서 117편의 공연과 축제가 펼쳐진다. 40일간 진행되는 공식 시즌에 프리Pre-포스트Post 시즌도 함께 운영하며 가을철 공연예술을 총망라할 예정이다.

서울어텀페스타는 준비 과정부터 주목해볼 만하다. 지난 4월, 예술가와 민간단체, 국공립 기관, 서울시가 함께하는 추진위원회 구성을 시작으로, 국내외 전문가 자문과 관계 기관 협력까지 폭넓게 이어졌다. 단순히 기관 주도의 사업이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함께 만들어가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쉬지 않고 이어지는 다채로운 라인업
서울어텀페스타는 서울의 공연예술 자원을 망라한 만큼, 연극·무용·음악·전통예술·복합 장르에 이르기까지 총 117편의 작품이

참여한다. 1·2차 공개 모집을 거쳐 민간 참여 74건을 비롯해 세종문화회관과 서울시립교향악단 등 관계 기관과 자치구 협력을 포함한 공공 참여 43건 등으로 구성된다.

국제 무대와 연결되는 서울세계무용축제 SIDANCE·서울국제음악제SIMF는 물론, 그랜드오페라축제와 대한민국 전통춤 축제처럼 장르별 대표 무대도 포함됐다. 여기에 영등포선유도원축제, 노원 어린이·청소년 연극제 등 지역 기반 축제가 함께해 그 의미를 더한다. 그 외에도 청소년 관객을 위한 연극 <고등어>, 서울예술상 대상 수상작인 99아트컴퍼니의 <제, 타오르는 삶>, 한국 전통 타악과 무용이 함께하는 타악그룹 타고 <더 드럼 사만> 등 다양한 작품이 함께한다.

더욱 특별하게 즐기 위한 세 가지 포인트

❶ 10월 4일 저녁 7시 서울광장에서 펼쳐질 개막공연은 ‘서울의 가을, 공연예술로 물들다’라는 주제로 막을 올린다. 연출가 고선웅이 구성하고 서정완 극공작소 마방진 대표가 연출을 맡아, 연극·무용·음악·전통예술을 하나로 엮은 90여 분 길이의 무대를 선보인다. 무대에는 원로배우 박정자, 윤별발레컴퍼니, 국악인 유태평양, 서울시소년소녀합창단 등이 함께해 공연의 의미를 더할 예정이다.

❷ 서울어텀페스타는 공연예술 통합 브랜드 최초로 ‘관객 맞춤형 특화 큐레이션’을 선보인다.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테마 ‘케데헌의 뿌리를 찾아서! K-아트’의 멋’,

실험적인 무대를 모은 ‘Mix & Beyond: 경계를 넘는 새로움’, 공연 애호가를 위한 ‘유명해져, 아니 유명해지지마. 나만 알고 싶은 공연’ 등 117편 프로그램을 열다섯 가지 테마로 나눠 소개한다. 관객은 연령·취향·선호 장르에 맞춤형으로 공연과 축제를 선택해 원하는 공연을 골라보는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❸ 대학로 서울연극센터(9월 16일부터)와 광화문 세종라운지(10월 중 예정)에 서울어텀페스타를 위한 통합정보센터가 차례로 문을 연다. 이곳에 방문하면 시민을 위한 준비한 공연·축제 홍보물부터 체험 프로그램, 다양한 이벤트 등을 만날 수 있다.

국내를 넘어 세계 무대로

서울어텀페스타 공식 기간에는 서울문화재단이 마련한 여러 프로그램도 선보인다. 추석 연휴인 10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광장과 청계천 일대에서 서울거리예술축제가 열린다. 올해는 특히, 청계천 복원 20주년을 맞아 청계광장부터 청계9가까지 공연을 보며 걷는 ‘아트레킹Artrekking’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걷기와 예술이 만나는 경험은 일상 속 공간이 무대가 되는 색다른 감동을 선사할 것이다. 그 외에도 국내외 작품과 각종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 등이 마련돼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예술의 장이 펼쳐질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36쪽에서)

더불어 11월 4일 DDP에서는 서울국제 예술포럼Seoul-Arts-Future-Talks, SAFT이 열린다. ‘서울에서 세계가 함께 이야기하는 예술과 미래’라는 주제로, 세계적인 연사들이 예술과 기술, 도시 정책을 주제로 대담과 토론을 이어간다. 예술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국제 담론의 장이 될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본지 11월호에서)

이처럼 서울어텀페스타는 올해를 시작으로 서울을 넘어 세계와 교류하는 국제 공연예술의 장으로 발전해나갈 계획이다. 앞으로는 국내 공연을 해외에 유통하고, 해외 작품을 초청해 국내 공연을 유치하는 등 글로벌 공연예술 플랫폼을 목표로 한다.



개막공연에서 시작해, 아트레킹으로 거리를 걷고, 국제포럼에서 미래를 이야기하기까지. 흩어져있던 예술과 예술을 잇고, 예술과 시민을 잇고, 더 나아가 서울과 세계를 잇는 서울어텀페스타. 40일간 공연예술로 물들어갈 서울의 가을을 기대해본다.

서울어텀페스타 통합정보센터 안내

대학로 서울연극센터
위치 | 서울시 종로구 대명길 3
운영 기간 | 9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
운영 시간 | 평일 오전 11시~오후 8시,
주말 오전 11시~오후 7시(월요일 및 공휴일 휴무,
추석 연휴 정상 운영)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세종라운지
위치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75 1층
운영 기간 | 10월 1일부터 11월 12일까지
운영 시간 |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추석 당일 휴무)

*공연 정보 안내 sfac.or.kr/seoulautumnfesta

열다섯 가지 키워드로 안내하는 서울어텀페스타

40일간 서울에서 펼쳐지는 117편의 공연 현장에서
당신에게 꼭 맞는 작품을 찾아갈 수 있도록, 열다섯 가지 키워드로 이뤄진
큐레이션 테마를 소개한다.



“생애 처음 만나는 공연”
“어린이 관객은 최고의 비평가다.” 연출가 피터 브룩의 이야기처럼 우리의 미래 세대는 가장 참예한 시각을 가진 관객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앞으로의 관객을 키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들이 즐길 수 있는 무대를 충분히 마련해주는 것, 그뿐 아닌가. 통상 ‘7세 이상’ 혹은 ‘초등학생 이상’으로 정해지는 공연장 입장 연령과 달리,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해 마련된 작품에 주목해본다.

2021년 개관한 어린이 전문 공연장인 노원어린이극장에서는 노원 어린이·청소년 연극제가 열린다. 어린이와 청소년이 직접

무대에 오르는가 하면, 지역 예술단체와 협업해 이들의 시각에 꼭 맞는 작품을 펼친다. 동대문구 장한로 일대에서 펼쳐지는 동대문페스티벌은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거리예술 퍼포먼스가 이어진다. 광진어린이공연장에서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인형극단으로 손꼽히는 예술무대 산의 가족인형극 〈산초와 돈키호테〉를 만날 수 있다. 이외에 스트리트댄스부터 미술·서커스·연극 등 장르를 접목한 창작매지컬 〈영화배달부〉, 창작뮤지컬 〈라면에 파송송〉, 이머시브 공연 〈극장의 도로시〉, 청소년극 〈고등어〉 등 챙겨봐야 할 공연이 수두룩. 올가을엔 미래 세대와 손 잡고 공연장을 찾아보면 어떨까.

김태희([문화+서울] 에디터)

“케데헌의 뿌리를 찾아서! K-아트잇”
생경한 공간에서 스친 뜻밖의 만남처럼, 서울의 가을은 불시에 감각을 흔든다. 광장을 가득 채운 북소리, 달빛에 배인 국악, 무용가의 궤적이 겹칠 때 이곳은 하나의 거대한 축제로 피어난다. 바야흐로 공연이 도시의 공기를 바꾸고, 여행자는 새로운 여정이 시작된다.

서울돈화문국악당은 서울의 밤을 서정적으로 밝혀준다. 〈아광명월〉은 은은한 달빛과 어우러져 판소리와 국악기의 깊이를 전하고, 〈여유작콘서트〉는 국악을 동시대 언어로 번역해 이방인에게도 친근하면서 신선한 공명을 선사한다. 낮선 밤 문득 마주친 선율은 오래도록 머문다.

심장을 울리는 박동을 원한다면 월드뮤직그룹 공명의 콘서트와 타악그룹 타고의 공연을 놓치지 말 것. 옛 율령에서 추출한 음정으로 만든 악기와 이머시브 음향·영상의 여운을 확장하고, 전통 음률을 현대적으로 풀어낸 타악 퍼포먼스는 현장을 제의적 분위기로 변모시킨다. 쉬이 가라앉지 않는 에너지에서 비롯된 몰입은 여행이라기보다 의식에 가깝다.

커튼콜이 끝나도 이야기는 쉽게 온점을 찍지 않는다. 달빛과 장단, 노래와 몸짓이 겹겹이 남긴 광경은 우리의 오감을 오래 붙잡아둔다. 심장은 여전히 리듬을 따라 뛰고, 눈앞은 색과 움직임으로 번져 있다. 그리고 잔상은 결국 당신을 다시 서울로 불러들이는 가장 강렬한 초대장으로 다가온다. 박이현(‘텍서리’ 매거진 피쳐 디렉터)



“클래식음악으로 물든 가을밤”
서울어텀페스타의 여러 공연 가운데 음악 장르는 긴 호흡으로 앙상블을 다져온 단체의 안정적인 연주와 탐구 정신으로 중무장한 도전적인 시도를 모두 만날 수 있다. 먼저 반포심산아트홀에는 두 가지 방향성의 무대가 모두 준비됐다. 피아니스트 이용규가 진행할 ‘서리풀 작곡가 탐구 시리즈’ 공연은 라벨 탄생 150주년을 맞아 그의 음악을 집중적으로 탐구한다. 한편 무지카 엑스 마키나가 함께하는 ‘서리풀 고음악 오디세이’ 시리즈는 이번 공연에서 ‘눈물과 고요’라는 시적인 제목 아래 한국의 정가와 영국의 류트 송을 한자리에 모았다.

자신이 다루는 음악 전통의 뿌리가 되는 작품을 중요히 다루는 고전적인 무대도, 계속되는 발견의 순간을 추구하는 공연도 준비된다. 디토 오케스트라의 정기연주회 〈독특 클래식 II - BEETHOVEN〉은 젊은 감각으로 중무장한 디토 오케스트라와 젊은 지휘자·협연자가 모여 다시 한번 베토벤이라는 고전을 탐구하는 공연. 코리아나 챔버 뮤직 소사이어티의 정기연주회는 한스 크라사와 스메타나·쾰베르크의 곡을 선보인다. 서양음악의 가장 주된 레퍼토리는 아니었으나, 이들은 분명 우리가 귀 기울여 듣고 새로운 영감을 만날 수 있는 작품 아닌가.

음악에 대한 탐구 정신부터 새로운 시도까지, 서울어텀페스타에서 만날 주요 음악 공연이 기대를 모은다. 뛰어난 음악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만들 이 기나긴 축제 안에서 음악적인 가을을 즐겨보면 어떨까. 신예슬(음악평론가)



“전통예술의 정수를 오감으로 맛보다”
서울 도심의 분주한 풍경 속에서 불현듯 마주치는 전통예술은 일상을 낮설게 흔드는 마법 같지 않을까. 서울어텀페스타는 한국 전통춤과 음악의 진면목을 경험할 수 있는 작품들로 지친 도시의 일상에 여운을 불어넣는다. 대한민국전통무용협동조합 무용제 〈여백〉에서는 명무들의 절제와 섬세함이, 무용가 김승애의 〈동동축축〉에서는 권명화류 춤을 중심으로 영남춤의 독특한 아름다움이 관객을 사로잡는다. 모두가 시조 한 곡을 부를 수 있는 미래를 꿈꾸는 제3회 호수문화제는 고즈넉한 가을 정취 속 명인들이 만들어내는

시조의 세계로 시민을 초대한다. 찬란한 문화유산의 역사를 조명하거나 이를 새롭게 길어 올린 공연도 준비되어 있다. 국악단 소리개의 〈길〉은 판소리와 사물놀이·재즈 등 다양한 장르를 가로지르며 삶의 희로애락을 담아내고, 타악 연주가 박안지의 장단 연구 프로젝트 〈금산농악〉은 금산농악 장단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타악 앙상블을 선보인다. 채옥선의 가야금 선율을 계승하는 〈성천10〉은 심청가의 여러 장면을 가야금병창으로 재구성해 재미를 더하고, 서울놀이마당에서 열리는 서울아리랑축제는 아리랑의 정신을 되살려 공동체의 가치를 전한다. 기성 공간이 지루하다면 밖으로 나와 친구·연인·가족과 함께 극장 밖 다양한 공간에서 전통예술을 직접 경험할 수도 있다. 여성국극 〈정년이 광화문에 오다〉는 드라마와 웹툰·창극으로 큰 인기를 모은 〈정년이〉를 광화문광장에서 마당극 형태로 새롭게 만나는 작품이다.

이번 서울어텀페스타는 단순한 공연이 아닌, 한국의 전통예술이 사람과 도시를 연결하는 순간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는 자리다.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다채로운 무대를 통해 눈과 귀, 몸으로 전통예술의 매력을 만끽해보자. 성혜인(음악평론가)



“연극뮤지컬, 작지만 강한 소극장의 파워”

서울어텀페스타에 참여하는 연극과 뮤지컬은 기존의 정통 연극 양식에서 벗어나 실험적인 시도를 펼치거나, 미니멀한 무대와 간결한 구성을 추구하는 경우가 많다. 관객과 밀착해 감각적 체험을 끌어내는 작품이 주를 이루는 것 또한 특징적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2인극’ 형식이 두드러진다. 올해로 25회를 맞은 월드2인극 페스티벌은 이러한 흐름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르 행사다. 연극 〈기도문〉과 뮤지컬 〈프라테르니테〉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2인극의 매력을 드러낸다. 〈기도문〉은 남과 북, 서로 다른 세계에서 자녀를 잃은 두 어머니가 등장해 상실과 애도의 감정을 공유한다. 〈프라테르니테〉는 프랑스 혁명을 배경으로 한다. 귀족과 어린 평민이 혁명의 이상을 위해 만나 연대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이야기로, 거대한 역사적 무대를 배경으로 삼으면서도 두 인물의 관계 변화에 집중한다.

젊은 창작자들의 기발한 발상과 패기 넘치는 도전 정신을 담은 소극장 작품도 눈에 띈다. 〈나의 고난은 50분 남았다〉는 극적 시간과 공연 시간을 동일하게 설정한 실험적 연극이다. 여행을 준비하는 평범한 가족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들은 조력 자살을 결심한 사람들이다. 관객은 마지막 순간을 실시간으로 지켜보며 삶과 죽음, 선택의 의미를 함께 겪게 된다. 〈먹태강에 대한 명상〉은 배우들이 취재하고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다큐멘터리 연극이다. 원본과 가짜가 혼재하는 산업사회와 소비사회의 본질을 성찰하게 한다. 무심히 지나쳤던 스낵이 연극 속에서 사회학적 은유로 확장된다. 박병성(뮤지컬 칼럼니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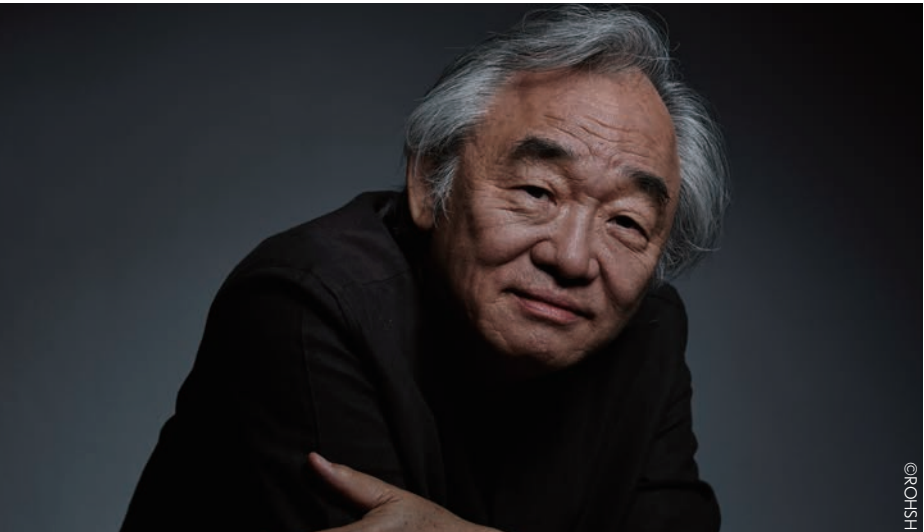
“춤과 퍼포먼스, 서울이 춤춘다”

가을은 수확의 계절이자 풍요의 춤이 활발하던 시기다. 축제의 리듬이 살아 있는 계절에 서울어텀페스타의 무용 작품 일곱 편이 서울 곳곳을 누빈다. 국내 최고령 댄스 페스티벌 서울무용제는 46회를 맞아 ‘연결’을 강조한 프로그램을 준비한다. 만형 격 축제의 하이라이트를 고르라면, 단연 예술성을 겨루는 경연 부문 작품 네 편이다. 석춘호수 아외 무대에서 펼쳐지는 서울발레페스티벌은 체험 프로그램으로 무장했다. 가을밤을 수놓는 국내의 발레단 공연은 물론, 아이와 함께하는 ‘핀펀FunFun 발레’, 특별한 데이트 ‘발레로썸’ 등 대부분 프로그램이 무료다. 주말 나들이에 제격이다.

좀 더 ‘딥’한 작품을 보고 싶다면 영화적 시선을 접목한 〈풍경〉, 스테디셀러에서 출발한 창작발레 〈안네 프랑크〉, 내면을 들여다보는

바리나모의 〈마음을 다해 붉고 깊게〉가 있다. 〈풍경〉은 현대무용가 김설진이 이끄는 무버가 공연한다. 요양원 내부 풍경을 초현실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영상 기법뿐 아니라 움직임은 3미터 크기의 대형 벽면을 들어왔다. 〈안네 프랑크〉는 댄스시어터샤하르가 선보인다. 전막 발레를 다수 보유한 이 단체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안네의 일기’를 통해 시대적 아픔과 희망을 그린다. 도파민 디톡스가 필요하다면 또 다른 현대무용 〈마음을 다해 붉고 깊게〉가 제격이다.

다른 축제도 있다. 제18회 K-발레월드는 한·중·일 발레단의 갈라 공연과 우리 발레 레퍼토리 6편을 연이어 선보인다. SDP댄스페스티벌은 저출산 시대 ‘딩크당스’를 주제로 여러 작품을 소개한다. 해외 디렉터를 초청해 공연 유통을 꾀하고, 교육자와 함께하는 세미나도 연다. 윤대성(월간 ‘댄스포럼’ 편집장)



“따끈따끈한 신작과 신예를 만나다”

21세기. 대한민국. 그 중심지 서울. (행운인지 불행인지 모를) 이 뜨겁고 찬란한 교차로에서 매일 새로운 예술이 태어난다. 서울을 본향 삼은 공연예술은 자연스레 도시의 얼굴을 닮는다. 빠르게 흘러가버리는 시대의 한순간이지만, 동시대의 목격자가 된 예술가들이 부지런히 이를 포착해 무대에 올리고 있다.

그리하여 신진 예술가들이 다가올 가을의 서울이라는 무대에서 선보일 작품은, 곧 우리의 이야기다. ‘한국 여성’이라는 키워드를 둘러싼 불편함을 ‘마법 소녀’라는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풀어낸 연극 〈반짝, 희라〉, 죽음이라는 상실을 함께 겪는 성소수자의 이야기를 다룬 연극 〈납골당 드라이브〉는 최근 우리가 공유해온 젠더 이슈를 포괄한다. 소셜미디어의 현실을 다룬 창작뮤지컬 〈페이크북〉이나 기후 위기의

메시지를 기존의 클래식 음악 작품과 연계해 표현한 헤아린 앙상을 〈사계, 2도의 세계, 2049〉 또한 동시대적 감각을 일깨우는 작품이다. 최근 오늘날 한국의 정취를 현실감 있게 담아내며 화제가 된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사자보이즈에 흥미를 느꼈다면, 오늘날의 서울에서 전통춤을 기반으로 창작의 미래가 되는 이들에 주목해보는 것도 좋겠다. 국립무용단이 차세대 안무가를 찾기 위해 시작한 ‘안무가 프로젝트’는 올해 세 명의 새로운 안무가를 소개한다.

도시 서울의 한복판에선 기술에 대한 고찰 또한 빠질 수 없다. 여러 작품이 인공지능AI을 둘러싼 다채로운 예술적 사고로 모두가 공감하는 경험을 다룬다는 점에서 젊은 예술가의 무대는 오늘날 관객이 품은 동시대의 감정을 어루만지는 값진 시간이 될 것이다. 허서현(월간 ‘객석’ 기자)

“깊이를 더한 이름, 감동을 더한 무대”

젊은 예술가의 새 작품이 오늘의 서울을 투명하게 담아낸다면, 여러 해를 거듭해 공연되는 작품 혹은 중견 예술가의 무대는 그 너머에 있는 사유의 바다와 같다. 아무리 맑은 물도 수심이 깊어지면 끝을 알 수 없을 만큼 짙어지는 것처럼, 검증된 예술이 주는 풍성한 사고의 깊이는 분주한 도시의 삶 속 마음 쉴 곳이다.

무엇보다 무한 경쟁의 시대에 ‘다시 공연된다’는 것은 그 자체로 꽤 그럴싸한 인증 도장을 받은 셈이다. 99아트컴퍼니의 〈제, 타오르는 삶〉이 대표적으로, 지난해 서울문화재단 서울예술상 대상을 받고, 이후 영국 런던 더 플레이스 공연에서도 호평을 받았다. ‘제의’의 의미를 오늘날의 노동으로 확대해, 한국 민속무용인 승무를 바탕으로 전통춤을 재해석했다. 이 외에 대한민국국악관현악축제와 서울시극단 〈트랩〉도 관객의 사랑을 받으며 거듭 무대를 장식하는 공연이다.

아티스트 이름만으로 기대감을 만족시키는 공연들도 있다. 수년째 모차르트에 관한 말년의 탐구로 빛나는 피아니스트 백건우의 독주회, 무대 인생 55주년을 기념하며 단테 ‘신곡’ 속 단테의 안내자 베르길리우스로 분한 배우 정동환의 연극이 그중 하나다. 무대 한복판을 거침없이 가로지르는 다수의 중견 예술가를 보유하고 있음은, 단연 우리 예술계의 든든한 자랑거리 중 하나다. 서울시발레단의 가을 공연 또한 현대 발레계를 대표하는 안무가 한스 판 마넨의 작품과 독일에서 일찍이 영향력을 드러내며 화제가 된 중견의 한국 안무가 허용순의 작품을 나란히 무대에 올린다.

여기에 푸치니의 3대 오페라 〈라 보엠〉을 선보이는 그랜드오페라축제와 ‘관객모독’으로 잘 알려진 페터 한트케의 희곡 ‘우리가 알 수 없었던 시간’을 선보이는 김아라프로젝트그룹 태의 비언어 총체극까지, 예술의 깊이를 담아내는 탄탄한 명작이 관객을 기다린다. 허서현(월간 ‘객석’ 기자)

“집에만 있기 아까운 날,
아외 공연으로 출동!”

길어진 여름, 짧아진 가을에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마음이 조금해진다. 이번 주말엔 어디를 가볼까, 근처 광장에서 축제가 열린다는데 비 소식이 있는 건 아닐까, 짧은 주말을 소중한 사람들과 값지게 보내고 싶은 사람들의 바람과 도시 곳곳 사이사이를 휘감는 문화예술의 바람이 휘감겨 솟아오르는 계절이다.

매년 추석 명절마다 도시에 남은 이들의 휴일을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서울거리예술축제가 올해 ‘서울다움’을 주제로 거리에 빛을 밝힌다. 특히 청계천 복원 20년을 기념해 서울광장을 비롯한 도심에서 물길까지 공간을 확장하고, 팬데믹으로 위축된 해의 단체와의 교류도 적극적으로 되살리고자 했다. 같은 시기 광화문광장에서는 광화문전통춤페스타가 펼쳐져 고향을 찾지 못하는 도시민의 마음을 위로할 예정. 춤·음악·연희 등 전통예술의 멋과 흥을 즐기며 ‘달보고 춤추는’ 주간이 될 것이다.

낭만적인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는 이라면 마포구 일대에서 펼쳐지는 M 클래식 축제를 통해 계절의 정취를 짙게 만드는 선율을 즐기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성악가들을 만나봐도 좋겠다. 조금 색다른 축제를 경험하고 싶다면 우리말을 소재로 한 예술을 망라한 말모이축제(대학로 일대), 서울의 지역성에 관심이 깊다면 강북 솔밭공원에서 즐길 수 있는 삼각산 소나무 예술제나 친환경 생태공원인 선유도를 거점 삼아 펼쳐지는 영등포선유도원축제를 찾아보는 건 어떨까.

김태희 ([문화+서울] 에디터)



“가을밤, 위로의 말 대신 건네는 예술”

가을은 언제나 마음을 촉촉하게 적신다. 공기가 바뀌면 도시의 리듬도 서서히 달라진다. 일상의 무게를 잠시 내려놓고 싶은 이 계절, 삶을 부드럽게 감싸안는 다섯 편의 무대를 주목한다.

민요는 한을 달래고 흥을 돋우며 오랫동안 민중의 삶을 지탱해온 노래다. 〈모던민요〉에서는 배역한 재즈 오케스트라가 민요에 새로운 숨결을 불어 넣는다. 경기·서도·남도·제주 등 한국 각 지역의 민요를 재즈와 결합해, 민요의 장단에 유연한 재즈 리듬을 더한다. 클래식 음악과 전자음악의 융합도 주목할 만하다. 음악가 백혜린의 〈공명과 파동: 음악을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는 고전 악기의 따뜻한 음색과 전자음향의 차가운 질감이 만나는 순간을 포착한다. 관객은 일상의 소음을 잠시 잊고, 음악이 만들어내는 파동에 몸을 맡기며 새로운 울림을 경험하게 된다. 앙상블 아코르테의 〈피아노 앙상블 시리즈 III: 가을, 서울을 건다〉는 도시의 다채로운 풍경을 피아노 음악에 빚낸다. 피아노는 혼자서도 오케스트라 소리를 연상시킬 만큼 풍부한 음향을 지닌 악기다. 그 울림으로 채워진 무대는 고층 빌딩과 한옥, 고요한 한강과 변화한 광장이 공존하는 서울의 모습과 닮았다.

피아노만큼 다채로운 색을 품은 악기를 꼽는다면 바로 기타다. 기타리스트 권진수의 〈다채로운 선율의 여행〉은 바로크부터 현대까지 시대를 넘나들며 악기 한 대로 펼칠 수 있는 다채로운 세계를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서울시립교향악단은 〈행복한 음악회 함께〉를 통해 발달·신체 장애를 지닌 연주자들과 함께 무대를 완성한다. 단원들의 세심한 지도와 꾸준한 합주로 준비된 이번 공연은 서로의 속도를 존중하며 완성됐다.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를 넘어서는 진정한 소통의 가치가 이 음악회에 담겨 있다. 장혜선 (공연 칼럼니스트)

“가슴한구석을 울리는 이야기”

바람이 차분해지고 길 위의 그림자가 길어질수록, 우리는 저마다의 이야기를 떠올린다. 극 무대에는 기억과 상처를 마주하고, 삶과 죽음을 넘나드는 서사가 기다리고 있다.

일제 강점기 암울한 시대, 링 위에 선 두 복서의 싸움은 단순한 스포츠 경기를 넘어선다. 창작뮤지컬 〈조선의 복서〉는 시대의 비극에 휘말린 이들, 그리고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그 기억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린다. 극단 작은신화가 선보이는 〈한 가족 이야기〉는 가장 은밀한 폭력으로 불리는 가정 내 학대를 정면으로 다룬다. 작품은 단순한 가족극을 넘어, 지금 우리가 외면하고 있는 사회적 질문을 집요하게 던진다. 한편, 극단 메타포의 〈담히지 않은〉은 국가 폭력의 그림자 속 희생된 이들을 은유적으로 불러낸다.

삶과 죽음을 마주하는 이야기도 관객을 기다리고 있다. 깎아지른 절벽 위 돌무덤과 한 그루 나무, 그 상징적인 공간에 말 더듬는 소년과 다리를 저는 소녀, 그리고 아들을 잃은 노부부가 등장한다. 공연제작센터의 〈그리고 바다를. 오르다〉는 죽음이라는 주제를 시적인 대사로 풀어낸다. 공연장작소 공간의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은 농인과 청인이 함께 무대를 만든다. 엄마의 죽음을 숨기는 가족, 그리고 그 안에서 고립된 농인 딸 윤희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둔다. 수어와 음성이 교차하는 무대 위에서 관객은 소통의 본질적 한계를 마주한다. 이 작품은 ‘장애’를 소재에 머무르게 두지 않는다. 오히려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반복되는 단절과 외면,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고 마주할 때 비로소 시작되는 회복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섯 편의 무대는 서로 다른 서사를 담고 있지만, 남기는 울림은 같다. 쓰러져도 다시 일어서야 한다는 것, 고통을 직시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서로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장혜선 (공연 칼럼니스트)



“신명 가득, 한판 놀아보세!”

올해 서울어티페스타는 여러 공연을 ‘전통예술의 핵심 살펴보기’, ‘문턱 낮추기’, ‘일상 및 도시적 감수성과의 연결고리 찾기’라는 공통분모로 연결해 축제라는 하나의 이야기로 엮어냈다. 공연마다 전승과 창작, 교육과 향유, 의례와 축제, 예술성과 대중성의 스펙트럼을 가로지르며, 단체와 예술가의 고유 역량이 각자의 언어로 빛나도록 설계한 것. 전통예술이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현재형 경험임을 증명하고, 관객은 ‘보는’ 사람이 아닌 ‘함께 만드는’ 존재로 바뀌는 순간이다.

가을, 서울의 공기는 전통음악의 장단을 닮아간다. 느리게 숨을 고르고, 한번 불으면 떠나지 않는 리듬. 서울어티페스타의 심장부에는 전통예술의 맥을 오늘의 감각으로 두드리는 한국장단음악축제 〈장단유희〉가 있다. 빛소리친구들의 〈홍부와 놀부가 열쑈〉는 장에예술인이 거리로 나와 모두와 만나는 시간이다. 창작민요프로젝트 화로花爐의 〈소리結(결): 서울의 가을, 공명하는 우리가락〉은 도심의 일상과 가을의 색채를 전통민요와 연계한, 이른바 ‘도시형 민요’의 가능성과 재미를 보여주는 순간이다. 〈홍성현의 조별비·수호신 골매기〉는 노동과 바다의 호흡에서 길어 올린 원초적 리듬을 무대로 소환하고, 국립국악관현악단 〈국악가요〉는 전통과 대중의 경계를 가뿐히 넘나든다. 제5회 에스-하다페스티벌은 신예의 에너지와 판소리·연희·춤을 가로지르는 장르 실험으로 축제의 온도를 한층 끌어올린다. 모든 공연과 단체가 관객과 함께할 호흡과 마음가짐으로 중무장했으니, 가을의 공기처럼 편안히 만끽해보자. 송현민 (음악평론가)

“Mix & Beyond: 경계를 넘는 새로운”

서울어티페스타의 콘텐츠 가운데 실험성이 돋보이는 공연들은 정답을 향하지 않는다. 공연은 완결된 진술이 아니라 질문이며, 관객은 그 질문을 함께 살아내는 동반자다. 우리는 ‘해체’와 ‘혼성’을 통해 익숙한 문법을 무효화하고, 무대와 관객, 전통과 현대, 예술과 일상의 경계를 허문다. 핵심은 ‘실험’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실험을 통해 예술이 사회와 맺는 관계를 새롭게 상상하는 것에 있다.

서울세계무용축제 올해의 테마는 ‘광란의 유턴’. 기후 재앙 이후, 정치적 극단주의가 휩쓸고 연대가 무너진 시대를 무용수들이 통과한다. 바람보다 먼저 놓고 일어나는 풀잎 같은 몸짓은 저항이자 치유이며, 무대 위의 몸은 단순한 표현을 넘어선 연대의 형상이다. 연주자와 작곡가가 구상 단계부터 협업하는 실험적 공연·연구 프로젝트 〈자연소 프로젝트 3-A〉는 국악기와 양악기가 대등하게 호흡하는 새로운 앙상블을 통해, 한국형 혼합 관현악의 가능성을 탐구한다. 한편, 오텔렌의 〈투어〉에서 관객은 단순히 보는 이가 아니라 공간과 공연의 일부로 개입하며, 매번 다른 방식으로 작품을 완성한다.

서울연극창작센터가 운영하는 실험 플랫폼 ‘오픈 랩 씨어터’는 블랙박스 극장에서 다섯 팀의 창작자들이 미완의 작품을 무대에 올리고, 관객과 전문가의 피드백을 통해 발전시킨다. 무대는 실험실이 되고 피드백은 창작의 일부가 되는 ‘미완과 과정의 실험’이다. 그 이름처럼 제도화된 무대와 장르의 경계를 끊임없이 이탈하며 새로운 예술의 장을 실험해온 옴/신 페스티벌 또한 살아 있는 플랫폼이 되기를 지향한다.

그런가 하면 서울시무용단은 전통춤 해체하고 재구성하며 재현의 본질을 다시 묻는다. 신작 〈미메시스〉는 전통은 박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호흡하는 신체의 기록이며, 무용수들의 몸은 이를 동시대적 질문으로 바꿔낸다. 오초롱이 시도하는 전통의 갱신도 주목할 만하다. 종묘제례악을 디지털 공간에 소환하는 프로젝트 〈종묘: 재래-악〉. 이 무대에서 죽음을 기리는 음악이 다시 탄생의 의식으로 이어지며, 피리의 숨결과 3D 점망 영상을 결합해 전통과 동시대 이미지를 겹쳐낸다. 허영균 (10씨와 온도를 디렉터)



“**초심자를 위한 부담 없는 추천**”
“**애호가 의 나만 알고 싶은 공연**”
문화예술을 만끽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호기심, 몰입을 위한 적극적인 태도, 고유의
취향과 개성, 예술 문화 전반에 관한 지식...
서로 다른 배경과 상황의 누구라도
서울어템페스타를 즐길 수 있다.

클래식 음악에 관심은 있었으나 다가가기
힘든 초심자라면 다니엘 린데만이 해설하고
KBS교향악단(지휘 여자경)이 연주하는
세종문화회관 누구나 클래식 <다니엘의 해설
클래식-베토벤 교향곡×협주곡>을 통해
베토벤의 명곡을 한데 감상할 수 있다. 베토벤의
긴 교향악 작품 중 일부분을 따로 떼어 곡에 실린
흥미로운 이야기와 함께 들려주는 모든 이를
위한 시간이 마련된다. 반면 심도 있는 감상을
통해 자신만의 음악 취향을 키워온 애호가라면
올해 열일곱 번째를 맞이하는 서울국제음악제에
집중해 볼만하다. ‘Dance with Me’이라는
제목으로 왈츠·마주르카·발레·탱고 등 클래식

음악사에 공고히 자리한 춤곡을 다채롭게
선보인다. 지휘자 키릴 카라비츠, 호르니스트
라데크 바보락, 바이올리니스트 백주영 등 국내외
곳곳에서 활약하는 음악가들을 만날 수 있다.

여름내 더위에 움츠려 있던 무용 초심자라면
‘에브리 바다, 에브리 윈’이라는 주제 아래
펼쳐지는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은평 개관
페스티벌로 기지개를 켜보는 건 어떨까.
발레·한국무용·현대무용 등 여러 분야의
청년·원로 무용인과 아름다운 움직임에 열망이
있는 일반 시민이 한데 어우러지는 이색적인
자리를 통해 몸의 감각을 깨우고, 좀 더 확장된
움직임 언어로 세상을 바라볼 기회를 마련한다.

몸에 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철학적인 사유를
펼치고 싶은 애호가에게는 대한민국 전통춤
축제와 백연발레프로젝트와이 <바다-
시물라크르>를 추천한다. 제주부터 경기까지
국공립 무용단 열 곳이 우리나라 전통의 현재와
미래를 한데 그려보는 풍성한 축제가 열리는 한편,

몸이라는 인간 신체 원형의 변형과 왜곡 현상이
확산하며 원본/복제의 구분이 상실되는 현실 속
몸에 관한 근원적이고 실존적인 질문을 던지는
무대 또한 만날 수 있다.

연극 분야에서는 관객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독려하는 체험형 연극부터 형식의 틀을
깨부수는 실험적인 무대까지 다양하게 관객을
맞이한다. 허먼 멜빌의 소설을 원작으로 기후
위기를 이야기하는 극단 올리브와 찢콩의 연극
<모비딕-두 눈의 기억>은 이머시브(관객 몰입형)
공연 형식으로 생동감 있는 체험의 시간을
마련한다. 스스로 생을 마감한 언니를 이해하기
위해 그의 연극 공동체를 찾아가는 동생 요셉의
이야기를 다룬 창작집단 상상두목의 <변두리 소녀
마리의 자본론>은 관객과 함께 직접 천연 효모로
반죽을 만들고 빵을 굽는 행위를 통해 인간-
예술이 공생하는 삶의 가치를 그린다. 짧은 시간
내 강렬한 몰입의 경험을 얻고자 한다면 릴레이
초단막극 축제를 표방하는 <프로젝트 10minutes-
8>도 눈여겨볼 만하다. **김호경(음악 칼럼니스트)**



©Seoul International Music Festival

AS SOON AS

예술가의 진심

시대와 함께 성장한 이루다의 무대

예술인 아카이브

송희지

윤예은

페이퍼로그

노들섬운영팀 김상민

인사이드

서울거리예술축제 2025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용산 가을 시즌

서울 로컬 리포트

서강석 강북문화재단 대표이사

트렌드

‘케데헌’ 돌풍, K-콘텐츠를 다시 생각하다

해외는 지금

축제가 끝난 뒤, 무대세트의 운명은

시대와 함께

서울거리예술축제는 서울광장을 비롯한 도심에서 펼쳐지는 서울 대표 야외 공연예술 축제다. 2003년 자발적인 시민 축제를 목표로 만들어진 하이서울페스티벌이 그 시작. 하이서울페스티벌은 꾸준히 형식을 바꾸고 새로운 시도를 통해 시민에게 한층 가깝게 다가서기 위해 노력했다. 2013년 거리예술로 특화된 축제로 자리 잡은 데 이어, 2016년 그 정체성을 확실히 하기 위해 지금의 이름으로 변경했다. 개최 시기도 여러 차례 변경됐지만, 대체로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쉬운 추석 연휴에 열린다.

성장한

수많은 시민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는 한편, 도시에 문화적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서울거리예술축제가 청계천 복원 20주년인 올해 새롭게 단장한다. 매년 가을 서울에서 열리는 공연과 축제를 하나로 잇는 새로운 공연예술 브랜드 ‘서울어텀페스타’에 포함된 것이다. 10월 6일부터 8일까지 열리는 서울거리예술축제 2025는 무용계를 비롯해 방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방위로 활동하고 있는 이루다 블랙토 대표가 연출을 맡았다. ‘서울다움’을 주제로 열리는 서울거리예술축제의 연출 방향을 이루다 대표에게 미리 들어봤다.

이루다의 무대

“올해 서울거리예술축제가 예년과 다른 점이라면 청계천을 따라 장소를 확장한 점입니다. 지난해까지는 서울광장 일대와 청계1~3가 등 도심 공간에 집중돼 있었는데요. 올해는 청계천의 하류인 청계9가까지 5.2킬로미터 구간을 따라 걸으며 공연을 즐기는 아트레킹을 새롭게 선보입니다.”



도심을 가로지르는 물길을 따라

서울거리예술축제는 그동안 무용·서커스·콘서트·미디어아트 등 다양한 장르의 예술 작품을 서울광장·청계광장·무교로 일대 등에서 선보였다. 올해는 청계9가 두물다리까지 확대된 공간에서 국내 작품 15편, 해외 8개국 13편이 관객과 만난다. 이루다 대표는 7일과 8일 저녁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주제 공연과 축제 전일 매일 청계천을 따라 걸으며 공연을 즐기는 프로그램인 ‘아트레킹Artrekking’을 연출한다. 아트레킹은 ‘아트Art’와 ‘트레킹Trekking’을 결합한 용어다.

“청계천 곳곳에 공모 등을 통해 선정된 작품이 배치되는데요. 관객이 아트레킹을 통해 이들 작품을 자연스럽게 접하게 됩니다. 다만 청계광장부터 청계9가까지 단순히 걷는 것만으로도 2~3시간, 공연까지 모두 보면 5시간 정도 걸립니다. 청계천 전 구간의 공연을 관람하기가 쉽지 않겠지만, 마라톤처럼 완주를 목표로 러닝화 신고 참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트레킹에서 만나는 공연은 주제에 따라 세 구간으로 나뉘어 배치된다. 청계광장부터 세운교까지의 1구간(1.6킬로미터)에선 ‘시간: 동시대성을 잇는 지금 서울길’이란 소주제로 현재 서울의 이야기를 국제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공연을 만나게 된다. 배오개다리부터 오간수교를 거쳐 영도교까지의 2구간(2.2킬로미터)에선 ‘공간: 역사성을 잇는 그때 서울길’이란 소주제로 청계천 공간의 기억이 흐르는 공연을 배치했다. 이어 황학교부터 두물다리에 이르는 3구간(1.4킬로미터)에선 ‘인간: 공동체성을 잇는 우리 서울길’이란 소주제로 예술과 물길을 따라 시민의 연대를 느낄 수 있는 공연이 준비됐다. 이루다 대표가 직접 안무 및 연출하는 공연도 2구간에 포함돼 있다. 〈시간을 걷는 몸〉이라는 작품으로, 청계천에서 영감을 얻은 장소 특정형 공연이자 공간을 활용한 이동형 공연이다.

“야외 공연은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고 의미를 담는 게 중요하잖아요. 청계천의 돌 하나라도 놓치고 싶지 않아서 해당 공간을 계속 걷거나 사진 찍으며 작품을 구상했습니다. 여성 소리꾼의 판소리·정가와 함께 무용수들이 줄지어 물 위를 걷는 데서 시작하는데요. 시간의 흐름,

즉 역사를 의미하는 물의 흐름 속에서 기억을 깨우는 행위입니다. 이후 해당 공간을 활용한 퍼포먼스가 펼쳐지는데요. 무용수들 외에 재연 배우들도 참여하는 발레터 장면은 과거 한국 여성이 전쟁 등 어려움을 견뎌온 삶을 오늘날 관객에게 보여주는 자는 의미입니다. 무용이 보여주는 추상성의 감동을 담되 관객이 보기에 어렵지 않은 한국적인 여성 퍼포먼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요즘 현대무용 안무가들도 각자의 작업에 한국적 이미지를 잘 융합하고 있는데요. 저 역시 몇 년 전부터 그런 고민과 시도를 해온 것을 이번 공연에 녹여내려고 합니다.”

아트레킹은 나만의 트레킹(자유 관람)과 동행 트레킹(코스별 안내에 따라 관람)의 두 종류로 진행된다. 예상 참여 인원은 하루 1천 명씩 총 3천 명이다. 시민이 단순히 퍼포먼스를 보는 것만 아니라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여럿 배치될 예정이다.

“청계천의 수용 인원 등을 고려해 동행 트레킹은 회당 참가자를 100명으로 제한했는데요. 인솔자와 자원봉사자가 청계천 다리 등 공간의 역사와 그와 연계된 퍼포먼스에 대해 설명해줍니다. 여기에 장소마다 스탬프를 찍거나 최종 목적지에서 명절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주막을 운영하는 등 참가자들이 즐길 수 있는 요소가 많습니다. 아트레킹의 과정이 쉽지 않겠지만 청계천에서 펼쳐질 그림을 상상하면 정말 재밌을 거 같아요.”

서울다운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아트레킹 외에 이루다 대표가 연출하는 주제 공연 〈서울의 울림 그리고 어울림〉도 기대를 모은다. 그동안 서울거리예술축제의 주제 공연은 시민에게 ‘서울’이라는 도시의 가치를 재확인시키는 한편, 공동체 의식을 느끼도록 만들었다. 이루다 대표 역시 ‘서울다움’이라는 이번 주제에 대해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서울’이라는 콘셉트를 내놓았다.

“청계천이 가진 역사성과 생명력이 이번 주제 공연에서도 중요합니다. 물의 흐름에 빚대 전체적인 서사를 그렸는데요. 시작한 한국종합예술학교가 이끄는 사물놀이 연주와 함께 무용팀 퍼포먼스를 촬영한 영상과



서울의 상징적 이미지를 더한 미디어아트가 주무대에서 흘러나오게 됩니다. 물에 잠겨 있던 역사와 기억을 깨우는 행위인 셈인데요. 물의 흐름이 서울광장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그리고서 사람들이 모인 서울광장에서 다채로운 음악과 춤의 향연이 펼쳐지게 됩니다. 무용의 경우 한국적인 춤사위와 함께 현대무용·발레 그리고 태권도 퍼포먼스 등이 어우러질 예정입니다.”

이루다 대표가 올해 서울거리예술축제의 아트레킹과 주제 공연의 연출을 맡게 된 것은 지난 5월 서울어텀페스타의 홍보위원으로 위촉된 것이 계기가 됐다. 서울문화재단은 올해

출범한 서울어텀페스타를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이루다를 비롯해 배우 박지일, 바이올리니스트 대니 구, 소리꾼 김준수 등 다양한 장르의 예술가를 포함한 홍보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루다 대표는 “서울어텀페스타의 홍보 관련 회의에 몇 차례 참여하면서 서울어텀페스타 기간 내 재단에서 추진하는 서울거리예술축제에 관심이 생겼고, 한국 문화를 녹여낸 퍼포먼스와 시민 참여 프로그램에 대해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면서 주제 공연 연출을 맡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루다 대표가 서울거리예술축제의 연출을 맡은 과정은 평소 적극적이고 도전적인 그의 성격을

잘 보여준다. 발레리나로 경력을 시작한 그는 컨템퍼러리 발레 안무가를 거쳐 축제 연출가까지 자신의 스펙트럼을 꾸준히 넓혀왔다. 그가 대중에 이름을 알린 것은 2013년 엠넷Mnet에서 방영된 국내 최초 춤 전문 서바이벌 프로그램 〈댄싱 9〉에 참여하면서다. 당시 춤의 전 장르를 아우르는 〈댄싱 9〉에서 그는 발레를 토대로 다양한 종류의 춤과 매끄러운 융합을 보여줘 눈길을 끌었다.

“〈댄싱 9〉은 제 커리어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됐습니다. 당시 무용의 대중화에 관한 고민이 많을 때였는데요. 시청자들의 피드백 보고 일반 관객이 무용에 느끼는 거리감을 체감한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이 무용을 즐길 수

있게 만들지에 관한 생각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특히 〈댄싱 9〉은 이루다 대표의 시그니처인 ‘블랙 스완(흑조)’이 대중적으로 알려지는 계기가 됐다. 검게 아이라인을 그리고 검은 토슈즈와 튀튀를 착용한 그는 분홍색 토슈즈와 하얀 튀튀로 대표되는 가녀린 발레리나와 차별되는 강렬한 이미지를 시청자에게 각인시켰다. 그런데, 그를 대표하는 블랙 스완은 콤플렉스와 결핍에서 나왔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어머니(현대무용가 이정희)의 영향으로 네 살 때부터 발레를 배웠어요. 예중·고를 거쳐 대학까지 발레를 전공했는데요. 클래식 발레가



요구하는 미적 기준에 제가 부합하지 못한다는 콤플렉스가 늘 컸어요. 그러다가 반항심이 들면서 나만의 새로운 걸 보여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공주가 되지 못한다면 스스로 블랙 스완이 되겠다고요.”

2008년 유니버설발레단에 들어선 그는 2년간의 활동을 접고 자신만의 길을 찾아나섰다. 미국 뉴욕으로 떠난 그는 다채로운 춤을 접하는 한편, 무용수로 활동하며 자신의 색깔을 찾아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2010년 미국 뉴욕에서 솔로 〈블랙 토BLACK TOE〉를 선보이며 안무가로 데뷔했다. 2013년 〈댄싱 9〉에 출연한 것을 계기로 이루다 블랙토를 만들고 국내 활동을 시작한 그는 무용의 대중화를 목표로 활발하게 작업했다. 온라인 영상 콘텐츠 제작을 비롯해 방송·대중음악·미술·뮤지컬 등 다양한 분야와의 협업도 그 연장선에 있다. 강렬한 미장센이 돋보이는 연출과 감각적 영상은 그의 작품을 관통하는 특징이다.

“안무가로서 처음엔 어둡고 괴기한 ‘블랙 발레’에

천착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안무도 제 색깔을 찾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 사회의 문제를 소재로 한 작품을 만드는 등 동시대성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작품을 만들 때 안무는 물론이고 연출을 많이 고민하게 돼요. 무용이 비언어 퍼포먼스인 만큼 그 의미를 관객에게 전달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고요. 지금은 〈댄싱 9〉 시절만큼 대중적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압박은 없지만, 일반 관객이 지나치게 어렵지 않게 느끼면서 생각할 여지를 주는 적절한 선을 찾으려고 해요.”

그의 예술적 성장은 2020년대 들어 선보인 작품에서 확실히 드러난다. 2020년 선보인 〈W〉는 소녀의 성장 과정을 통해 여성의 존재 의미를 표현한 작품으로 한국춤평론가상 작품상을 받았다. 또한 2021년부터 3년간 매년 선보인 〈디스토피아〉 시리즈는 환경 문제, 디지털 사회의 폐해, 약물 중독 등으로 인한 인간의 불안정한 모습과 부정적인 미래 사회를 조명해 호평을 받았다. 발레의 이단아를 넘어 컨템퍼러리

↑ 이루다블랙토의 무대

예술가로서 면모를 확실히 다진 모습이다. 여기에 다양한 분야와의 협업을 통해 시야가 넓어진 그는 서울거리예술축제 같은 대형 예술 행사를 맡는 예술가로 성장했다.

“지난 8월 정구호 선생님이 연출을 맡아 경주에서 열린 APEC 문화산업고위급대화 만찬 공연의 안무를 진행하는 등 그동안 국가 행사의 주제 공연 중 일부를 맡은 적은 있지만, 서울거리예술축제 같은 대규모 야외 공연을 연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아직 부족한 점이 많지만, 서울문화재단에서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큰 문제 없이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국가 행사나 축제 연출은 제가 그동안 이루다 블랙토에서 작업하던 방식과 완전히 다른데요. 무엇보다 제 개인의 감정을 표출하는 예술 작업과 달리 한국 문화의 역사성이나 상징적 이미지 등을 담아야 하는 만큼 시야를 넓게 가지는 게 중요한 것 같아 앞으로도 한국적 미학에 대해 꾸준히 공부하려고 합니다.”

윤예은

공연/연극·거리예술·피지컬시어터
@yyene
@we_are_masterpieces
2025 서울거리예술축제 참가
2023 청년예술지원사업 선정
2020 거리예술 NEXT 수료

“ ‘걸작들’이라는 단체를 이끌며, 다양한 공연에 퍼포머로 활동하고 있는 윤예은입니다. ”

“ 2017년 연극 〈내일을 사는 법〉으로 무대에 데뷔해 여러 작품에 출연하다가, 2020년 거리예술 NEXT 과정을 거치며 본격적으로 창작자로서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거리예술 NEXT에서 여러 작품과 창작 방식을 접하며 제 작품을 직접 만들어보고 싶다는 용기를 얻었어요. 거리예술을 시작한 것은 2017년 프랑스 예술단체 콩파니 아도크Adhok의 〈비상〉이라는 작품에 배우로 참여하면서였습니다. ‘관객이 거리에서 공연을 본다’, 그것도 모자라 ‘관객이 함께 이동하면서 공연을 본다’는 개념이 너무 낯설어 처음엔 믿기 어려웠지만, 직접 서울 청계천 일대를 관객과 함께 누비며 그야말로 새로운 감각이 열리는 경험을 하게 됐어요. 그 후로 거리에서 공연이 일어난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사람들에게 어떤 에너지를 줄 수 있고, 자유롭게 오가며 관극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멋진지 자주 생각하며 이 길을 꿈꿔왔습니다. ”

“ 저의 삶을 지내며 느껴온 것들, 혹은 동료들과 대화를 나누고 리서치하며 모아온 것들을 재료 삼아 공연을 만들었는데, 그 공연으로 관객을 만나고 그 이야기가 관객에게 가닿았음을 느꼈을 때 위로를 받는 기분이 들었어요. 커튼콜의 박수, 공연 중 마주치는 눈빛, 끝나고 건네주시는 짧은 인사까지 감사했고, ‘내가 할 수 있는 예술도 존재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

“ 걸작들의 대표 작품은 〈신호수VS신호수〉입니다. 2023년에 아파트1층에서부터 8층까지 관객과

함께 걸어 올라가는 장소 특정형 공연을 만든 적이 있는데요. 제가 이상적으로 배우고 생각한 ‘거리예술’과 다르게 공간을 점유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느꼈어요. 그러다 우연히 길을 걷는데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신호수분들이 임시 통로로 사람들을 이동시키더라고요. 그때 ‘아, 공사하는 사람들은 일시적으로 길을 점유할 수 있구나?’, ‘그러면 나는 공사하는 것처럼 꾸며내서 길을 점유하고 공연하고 싶다. 근데 그럼 그 점유한 곳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까?’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라고 외치고 싶어’ 같은 생각이 이어지면서 작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자신의 존재를 증명해내야 하고, 쓸모없으면 대체되잖아요. 마치 기계의 부품처럼요. 하지만 유니폼 안에는 분명 여러 생각과 감각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 우리는 모두 존재 자체만으로도 유일하고

↓ 걸작들 〈당신은, 당신의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 필름바우쉬(김재현)



→ 걸작들 〈휘어-청〉 ©이양희

가치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것을 이미 서로를 대체하며 노동하고 있는 신호수와 신호수 마네킹을 상징으로 삼아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이 공연으로 캐나다 몬트리올 골목길 축제Festival des Arts de Ruelle를 다녀왔습니다. 저희는 움직임을 하며 대사를 함께 이어가는데요. 말의 높낮이와 몸을 움직일 때 바뀌는 템포를 이용해 말을 음악처럼 사용했습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으니까 이 특징을 더 도드라지게 감각해주시는 것 같아서 기쁩니다. ”

“ 일상을 지내면서, 아니면 다른 예술 작품을 보면서 들어오는 생각의 파편들이 있는데, 그게 문득 하나로 모일 때 강력한 영감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가만히 있다고 저절로 되는 건 아니고, 어떤 한 가지 생각을 자주 하고 있을 때 자석에 못이나 쇠가루가 붙는 것처럼 다양한 영감이 모여드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일기나 메모를 다시 한번 들춰볼 때 생각이 하나로 연결되는 걸 느껴요. ”

“ 공연 〈푸에르자 부르타〉가 기억에 남는데요. 퍼포머가 관객과 눈을 마주친다는 게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는지 다시금 느낄 수 있었어요. 어머니와 관람했는데, 세대를 넘어 누구나 그 음악과 순간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장이 열렸다는 점이 특히 좋았습니다. ”

“ ‘걸작들’은 움직임과 대사가 한 작품 안에서 상호작용 하면서 새로운 연극적 형식을 만들어내는 방식을 탐구하고 있어요. 핸드 투 핸드 서커스와 밸런스를 이용한 애크러배틱 움직임을 하며 동시에 대사를 합니다. 대사를 하다가 움직임을 하면 왜 어색해질까? 움직임을 하다가 대사를 하면 왜 어색해질까? 라는 질문에서 시작해서, 그것들을 합쳐봤는데 나름 재미있는 표현 방식이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계속해서 움직임과 대사가 충돌하고 연결되며 만들어지는 재미난 순간들을 발견하고 그것을



극에 녹여내고 있는데요. 이 작업을 이어가서 ‘걸작들’만의 장르를 개척하고 싶습니다. 저희 공연은 여러 장르가 혼합돼 있어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대사도 하고… 움직임도 하고… 서커스 요소도 들어가는데요… 어느 때는 거리에서, 어느 때는 극장에서 하기도 하고…

관객과 함께 공간을 점유하며 걷기도 하고…” 하면서 “아… 일단 보시면 이해가 될 텐데…” 이런 퀄리티로만 말해야 하는 게 속상해요. 언젠가는 ‘걸작들’이에요! 하면, “아 걸작들 스타일~” 하고 바로 이해할 수 있는 저희만의 고유한 장르를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

노들섬운영팀 김상민

변화는 아주 작은 차이에서부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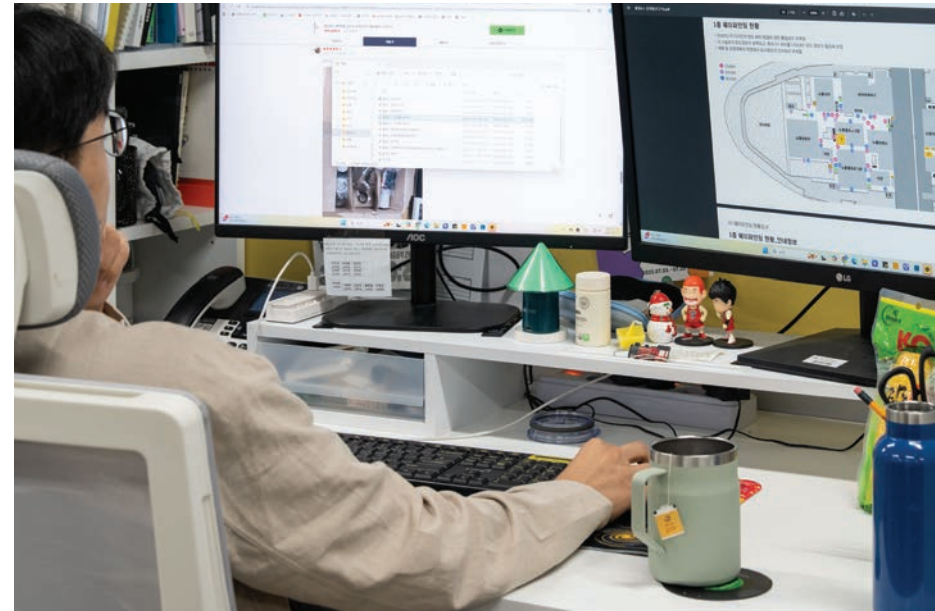
김상민 대리는 현재 노들섬운영팀에서 시설과 안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020년 3월, 팬데믹과 동시에 입사하는 바람에 곧바로 부서에 배치돼 서울연극센터에서 일을 시작했는데요. 첫 업무 목표는 공과금을 지출 처리할 때 반려되지 않고 한 번에 처리하기였답니다.(웃음) 2023년 말 노들섬으로 옮긴 뒤에도 시행착오가 많았어요. 워낙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곳인 데다 이전까지 민간에서 위탁 운영했고, 입점사와 주차장도 있어 재단의 일반적인 공간과는 다른 부분이 많으니까요. 서울문화재단이라는 공공성과 특수성을 고려하면서 이런저런 어려움을 해결해야 할 때, 물론 머리가 아프기도 하지만 재미를 느낍니다.

철학과 윤리, 그리고 연극 대학에 다니면서 연극 동아리를 운영하고, 또 한때 극단 결반에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연극을 직접 하는 재미를 느꼈다면, 재단에 입사해서는 연극을 보는 데 흥미를 갖게 된 것 같아요. 공연장이라는 공간에서 관객과 마주하게 되는 연극 특성상 무엇을, 어떻게 재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수반되는데요. 세월호·블랙리스트·미투 등 사건을 겪으며 그러한 고민이 더 커졌고, 그 고민의 흔적을 엿볼 수 있어 연극이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연극을 보는 게 제일 좋아하는 취미가 됐고요. 대학에서 철학을 전공하고 윤리교육 석사 과정을 거치면서 선생님이라는 꿈을 갖기도 했지만 당장 엄두가 나지 않네요. 지금도 해 보고 싶은 일이지만, 그보다는 재단에서 창작자들의 생각과 표현을 접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물론, 제가 하고 싶다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요.(웃음)

서울연극센터에서는 웹진 [연극in] 운영을 꼭 담당했습니다. PLAY-UP 아카데미와 재개관 이후 공간을 이용한 회극제와 공간개방축제 등도 잠깐씩 맡았고요. 현장에서 진행되는 행사는 참여자들을 직접 만나기 때문에 피드백이 쉬운데, 웹진은 그렇지 않아서 담당하는 동안 만나는

들어간 상태라 여러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저 역시 웹진을 운영하던 당시 종종 콘텐츠에 관한 민원을 받곤 했는데요. 필자의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발행 주체로서 재단의 역할을 지켜야 하고, 그러니 짧은 글 한 편에도 여러 관계가 얹힐 수밖에 없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좀 더 이용자 친화적인 노들섬을 위해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매우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일하고 있어요. 노들섬운영팀만 해도 11명, 노들섬사업팀 16명, 시설관리소 26명, 동행일자리 3명까지 상시로 근로하는 사람만 56명에 달합니다. 덕분에 이 큰 노들섬의 업무가 수월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이해관계가 있다보니 업무를 하다보면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발생하곤 합니다. 예컨대 노들섬



서측에 이미 길고양이를 챙기는 분이 있는데, 동측을 사용하는 이용자도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고 있지요. 그러다보면 고양이와 벽 사이에 갇힐 수 있고 오염의 문제도 있어 시설관리소에서는 밥을 주지 말라고 한 상황입니다. 재단은 시설을 위탁받은 책임자이니 이런 문제를 조율해야 하는데, 마냥 쉽지만은 않아요. 관리나 안전을 위해 제한하는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지만, 이용자들은 ‘왜 안 돼?’ 하고 넘길 수 있는 부분이지요. 그런 것들을 잘 조율하는 것이 가장 큰 부분입니다. 또 서울연극센터에서 일하던 당시 접근성을 위해 노력하는 창작자들을 보며 저 역시 접근성 문제에 관심이 생겼는데요. 노들섬에서 시설 운영을 맡게 되면서 이곳 공간 자체의 접근성도 보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해 말에 장애인 당사자들과 함께 점검을 진행하고, 이어서 올해는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휠체어 이용자가 지적한 부분 중 하나는, 출입문을 열어놓아달라는 것이었는데요. 내부적으로는 모두가 공유하고 실천하며 이 부분이 개선됐지만,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서가의 경우 적용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니다. 그래서 문 앞에 “이동 편의를 위해 문을 열어둡니다” 같은 문구를 붙이기도

했고요. 이용자들이 익숙해진 공간이라 생각보다 바꾸는 게 어렵기도 하지만, 시간이 필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조금씩 고민하고 노력하다보면 바뀌지 않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 문화행정가로서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안전인 것 같아요. 노들섬에 큰 행사가 있을 때면 용산구청과 경찰서·소방서·한국전력공사 등에서 합동 점검을 시행하는데, 듣기로는 이태원 참사 이후 강화된 조치라고 하더군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렇게 조금은 변화하고 있다고 느껴요. 직접적으로 안전과 결부된 지점만 아니라, 같이 일하는 이들의 안전도 중요하지요. 노들섬에서의 경험만 아니라 재단에서 여러 사업을 운영하며 안전에 더더욱 관심을 두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 자연스레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결과물, 창작물에 그러한 관심이 드러나는지 살펴보게 되고요. 나아가 그 지점이 제게는 어떤 공연을 관람할지 말지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사회에 문화예술이 좀 더 풍성해지려면 문화예술을 통해 무언가를 다시 생각해보고, 어떤 변화가 생긴다면 이미 당신의 삶에 문화예술이 좀 더 깊이 스며든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물론, 문화예술이 어떤 목적을 가져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개인적으로는 공연이나 문학 작품 등을 통해 이전과 다르게 생각하는 계기를 가진 것 같아요. 또한 그러한 계기는 조금만 차이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예를 들자면, 접근성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 또한 공연을 예매하기 위해 웹에 접속하면 음성 포스터가 제공된다거나, 공연장을 찾았는데 이동식 경사로가 설치돼 있다거나, 공연 시작 전 트리거 워닝 같은 안내와 공연 중 자막 혹은 음성 해설 등을 마주하면서 자연스레 이뤄졌거든요. ‘이건 뭘까’ 하는 궁금증에서 그 필요성까지도 공감한 것 같아요. 만약 노들섬 복합문화공간에서도 그런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면, ‘이곳은 다른 공간과는 다르게 이런 것이 있네’, ‘왜 이렇게 필요할까’ 하는 궁금증부터 나아가 ‘요즘 문화예술계는 이런 걸 관심 있어 하는구나’ 싶은 생각까지도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요. 작은 차이에서 그러한 계기가 만들어지고, 지금 노들섬에서 시설을 담당하는 제가 노력할 수 있는 부분 역시 그런 차이를 만들어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청계천을 따라 예술로 걷는 길 서울거리예술축제 2025

가을의 정취가 무르익는 10월, 서울 도심이 거대한 예술 무대로 변신한다. 민족 대명절 추석과 함께 열리는 서울거리예술축제 2025는 10월 6일부터 8일까지 사흘간 시민과 만난다. 올해 축제는 청계광장에서 청계9가, 그리고 서울광장까지 이어지는 일상 공간을 무대로 삼아 도심을 새로운 축제의 장으로 탈바꿈시킨다.

하이서울페스티벌로 시작해 23년 역사를 이어온 서울의 대표 예술 축제인 서울거리예술축제는 올해 청계천 복원 20주년과 2024~2025 한국-캐나다 상호 문화교류의 해라는 특별한 계기를 통해 더욱 의미 깊게 펼쳐진다. 또한, 올해 새롭게 출범한 서울의 가을 공연예술 시즌 브랜드 ‘서울어텀페스타’의 대표 축제로, 거리예술·무용·전통연희·서커스·야외 전시 등 국내외 30여 편 작품이 도심을 가득 메우며 시민을 예술의 세계로 초대한다.

축제, ‘서울다움’을 묻다

올해 축제는 청계천이 예술로 만개하는 상상에서 출발해 ‘서울다움’이라는 질문을 시민과 함께 나눈다. 서울광장을 넘어 청계천을 따라 장소를 확장해 도심 전체가 거대한 산책형 무대로 탈바꿈한다.

‘서울다움’을 주제로 진행된 국내 공모(기획형·자유형)에는 코드세시·극단 분홍양말·광대생각 등 10팀이 선정됐고, 해외 공모를 통해 스페인·영국·프랑스 등 8개국에서 10팀이 한국을 찾는다. 서커스·광대극·애크러배틱·전통연희·퍼레이드·야외 전시 등 다양한 장르가 추석 연휴 3일 동안 펼쳐진다.

도심 곳곳에서 만나는 작품은 관객 각자에게

‘서울다움’을 질문하며, 도시를 예술로 새롭게 발견하는 즐거움을 선사하고, 예술의 사회적 의미와 도시 공간의 가치를 다시금 확인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청계천 물길 따라 아트레킹

이번 축제에서는 이루다 블랙토 대표이자 무용가 이루다가 주제연출을 맡아, 청계광장부터 청계 9가까지 5.2킬로미터 구간을 따라 걸으며 공연을 즐기는 ‘아트레킹 Artrekking’을 새롭게 선보인다.

아트레킹은 예술 Art과 걷기 Trekking을 결합한 올해 축제의 신규 프로그램으로, 청계천을 따라 걸으며 공연과 전시를 만나는 새로운 방식의 관람 경험을 제공한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시간의 풍경이 달라지고, 다리마다 무대가 열리며, 도심 속 자연과 예술이 어우러지는 특별한 여정을 선사한다. 아트레킹은 정해진 시간에 함께 걷는 ‘동행 트레킹’과 원하는 시간에 자유롭게 즐기는 ‘나만의 트레킹’,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동행 트레킹에서는 해설과 함께 작품을 감상할 수 있고, 나만의 트레킹은 나만의 속도로 예술과 마주하는 여유로운 시간을 제공한다. 코스는 청계광장에서 청계9가까지 이어지는 야외무대를 ‘시간·공간·공동체’라는 세 축으로 설정하고, 과거·현재·미래를 연결하는 예술적 서사를 담아 3개 구간으로 나뉘었다.

1구간(청계광장~세운교, 약 1.6킬로미터)

‘지금 서울 길’을 주제로 국내외와 해외의 거리예술 작품 20여 편을 선보이며, 현재 서울의 모습과 국제적 시각을 함께 담는다.

2구간(배오개다리~영도교, 약 2.2킬로미터)

‘그때 서울 길’을 주제로 청계천의 공간성과

→ 코드세시 〈특별, 나만의 별〉 ©안산국제거리극축제



역사성을 되살린다. 무용가 이루다와 소리꾼 채수정이 함께 만드는 연출한 무용과 판소리 공연이 오간수교를 배경으로 펼쳐진다.

3구간(황학교~두물다리, 약 1.4킬로미터)

‘우리 서울 길’을 주제로 공동체성을 담는다. 피아노서울과 연계한 피아노 공연, 관객 참여 프로그램, 야외 전시가 마련된다.

완주 지점인 용두동 소재 서울문화재단 본관에서는 추석 음식을 나누는 ‘예술주막’이 시민을 기다린다. 아트레킹은 단순한 예술

감상을 넘어 건강과 공동체의 활력을 담아내며, 건강한 도시 서울의 ‘서울다움’을 구현한다.

‘청계, 만개’라는 주제 아래 흐르는 물길 위에서 다양한 장르의 예술이 꽃처럼 피어나고, 시민은 그 길 위에서 과거의 기억과 현재의 감각, 미래의 가능성을 함께 경험하게 될 것이다.

주목할 무대의 면면

축제 첫날인 10월 6일 오전, 청계광장에서 이루다 연출의 공연이 축제의 서막을 연다. 이어 코드세시의 〈특별 도시에 떨어진 별들〉은 서울



도심 한가운데서 별을 찾아내 모빌로 띄워 올리며, 공중서커스와 함께 추석 하늘을 바라보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한다. 청계천을 따라 퍼포머와 함께 이동하며 감상하는 참여형 작품도 이번 축제만의 매력이다. 걸작들의 〈신호수VS신호수〉는 ‘노동’ 속에 감춰진 인간의 모습을 신호수 이야기에 빗대 풀어낸 블랙코미디다. 대사와 액로배틱을 오가며 웃음과 씩씩함을 동시에 불러일으키고, 노동의 불안과 압박감을 생생히 드러낸다.

리타이틀의 〈¿ Adónde? 어디로?〉는 관객이 퍼포머와 함께 여정을 걷는 작품으로, 매 순간 다른 선택지를 통해 각기 다른 길과 장면을 경험하게 한다. 관객이 남긴 발자취가 도심 안에서의 서사를 완성하며, 마지막으로 이르러서는 ‘나는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가’를 묻게 한다.

청계천 곳곳에서는 상상력을 자극하는 대형 퍼포먼스도 시민을 기다린다. 프랑스 거리극단 트랑스 익스프레스Transe Express가 선보이는 〈거대한 인형들Poupées géantes〉은 거대한 인형과 거리악단, 라이브 보컬이 결합된 장대한 퍼레이드다. 서울의 거리를 오페라 무대로 바꾸며, 관객과 배우·인형이 하나돼 압도적 시청각 향연을 펼친다. 또 호주의 플레이어블 스트리트츠Playable Streets가 선보이는 〈노래하는 화분The Musical Plant〉은 시민이 다가가면 반응하는 설치 작품으로, 예술과 자연의 경계를 허문다. 청계천을 따라 걷는 순간순간이 새로운 예술적 풍경이 된다.

서울광장은 이번 축제의 저녁 무대를 책임진다. 현대무용·미디어아트·사물놀이·태권도가 어우러진 이루다 블랙토의 〈서울의 울림 그리고 어울림〉은 이번 서울거리예술축제 2025의 주제 공연으로 서울이 걸어온 시간과 그 속에서 함께 호흡하는 관객의 어울림을 담아낸다.

이스트허그(64ksana)의 〈군문열림: The Rite of Now〉는 한국 무속의 구조를 전자음악과 미디어아트로 재해석해 현대적 의식으로 재탄생시킨다. 또한 박인선과 장군님들의 〈박인선이 나타났다〉는 강령탈춤과 록 사운드를 결합해 웃음과 흥을 이끄는 무대다. 서울광장의 밤은 즉흥과 에너지로 가득하며, 무대와 객석의 경계가 허물어진 그곳에서 관객은 곧 주인공이 될 것이다.

← 이루다 블랙토 〈디스토피아〉 ©옥상훈



또한 2024~2025 한국-캐나다 상호 문화교류의 해를 기념해 캐나다 퀘벡의 아티스트들이 ‘스포트라이트 온 퀘벡Spotlight on Québec Street Arts’ 프로그램으로 서울거리예술축제에 참여한다. 스케이트를 타고 거리를 질주하는 엘리트 드 라 글리스L’Élite de la Glisse의 〈글라이딩 엘리트L’Élite de la Glisse〉, 거대한 나무 형상의 인형이 도심을 걸어 다니는 이폴리트Hippolyte의 〈담쟁이 인간Lierre Marchant〉 등 캐나다 퀘벡의 작품 두 편이 서울 거리를 무대로 장관을 펼친다.

또한 프랑스·스페인·영국·헝가리·호주 등 8개국에서 온 작품 10편이 축제의 국제적 위상을 더하며, 서울에서 세계의 거리예술을 한눈에 만날 수 있는 장을 만든다. ‘소통interaction’ 역시 이번 축제의 핵심 키워드다. 단순히 관객이 무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직접 참여해 작품을 완성하는 경험이 준비된다. 청계천 황학교 다리 밑에서는 시민 누구나 피아노를 연주할 수 있는 ‘피아노서울’, 전통 한지로 소원을 적어 청계천에

거는 참여형 프로그램 등 예술은 무대 위에만 존재하지 않고 시민의 손끝과 발걸음 속에서 피어난다.

축제를 이루는 힘, 시민

서울거리예술축제의 또 다른 주인공은 바로 시민이다. 무대 위 배우와 거리의 예술가만이 아니라, 축제를 지탱하고 활기를 불어넣는 시민의 참여가 축제를 더욱 특별하게 만든다. 올해도 100여 명의 자원활동가가 공연·외국어 지원·홍보 등 다채로운 역할을 맡아 축제 현장을 밝히고, 관객과 예술가 사이를 연결하며 따뜻한 에너지를 전한다.

올해 새롭게 마련된 ‘예술주막’은 시민 참여의 즐거움을 더하는 공간이다. 전과 막걸리 같은 명절 음식을 나누며 공연을 즐기고, 포토존과 이벤트 부스에서 소중한 순간을 남길 수 있다. 스탬프 투어, 럭키드로우 등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이 축제를 즐거운 추석놀이로 만들며, 시민이 곧 축제의 중심이 되는 경험을 선사한다.

↑ 리타이틀×에스더 엘린 〈¿ Adónde? 어디로?〉 ©Letitle

오는 명절, 가족과 함께 거리로 나와 서울 도심 한복판을 걷고 예술을 나누는 시간은 더욱 특별할 것이다. 서울거리예술축제 2025는 단순한 관람 차원을 넘어,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함께 걸으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살아 있는 축제다. 길 위에서 만나는 다양한 장르의 공연과 야외 작품은 서울이라는 도시의 얼굴을 새롭게 비추고, 시민 각자의 경험은 축제 속 하나의 이야기가 돼 도심을 활력으로 채울 것이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옛말처럼, 이번 추석 서울의 거리는 거리예술로 더욱 풍성해질 것이다. 청계천을 따라 이어지는 길 위에서, 서울광장을 가득 메운 공연 속에서 우리는 각자의 ‘서울다움’을 발견하게 될 것이며, 시민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남긴 흔적은 곧 서울의 새로운 이야기로 이어진다. 이로써 축제를 찾은 이들의 마음이 예술로 풍성하게 채워지기를 기원한다.

계절이 건네는 예술 인사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용산 가을 시즌

바쁜 도심 속에서 잠시 걸음을 멈추고 예술과 함께 숨을 고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용산은 계절마다 다양한 예술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용산역과 신용산역을 오가는 시민에게 일상과 예술이 만나는 경험을 선사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봄·여름 시즌에 2만여 명이 이곳을 찾았고, 지난 9월부터 용산 센터가 준비한 가을 시즌이 시작됐다. 가을 시즌은 다정한 안부와 함께 예술을 선물하는 ‘다정한 아트라운지’와 서울문화재단의 대표 예술교육 브랜드 ‘서울시민예술학교 용산’으로 구성된다. 두 프로그램 모두 문학·음악·시각예술 세 장르를 중심으로 예술을 친근하게 소개한다.

다정한아트라운지는 누구에게나 열린 공간으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 시간(일·월요일 휴관) 내 방문하면 전시를 보고 음악을 듣고 책을 읽을 수 있다. 가을 시즌은 11월 1일까지 이어진다. 상설 체험으로는 노벨문학상 여성 수상자들의 책을 소개하는 ‘가을이 전하는 문장’, 최경주 작가의 가을 패턴 전시《가을이 함께한 그림》, 재즈 명반을 LP로 감상하는 ‘가을이 흐르는 음악’이 마련됐다.

서울시민예술학교 용산 가을 시즌은 18개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11월 말까지 진행된다. 장기 과정인 예술마스터 오페라 과정을 제외하고는 모든 프로그램이 무료다.

문학 분야로는 문학 작품으로 씬을 추구하는 ‘힐링북콘서트’, 작가와 함께 작품을 감상하는 ‘독서가이드’, 시와 에세이 창작을 경험해보는 ‘한 번쯤’ 시리즈가 있다. 음악 분야는 10회에 걸쳐 진행되는 오페라 탐구 ‘예술마스터’, 연주와

강의가 결합된 ‘렉처in살롱’, 음악 서적을 함께 읽는 ‘음악독서회’, 영상과 함께 음악을 감상하는 ‘음악상영회’로 구성된다. 시각예술 분야는 작가와 함께하는 창작 체험 ‘창작의 발견’ 시리즈, 한국 근현대미술 강좌 ‘고전의 발견’, 미술 감상법을 배우는 ‘서울미술산책’으로 이뤄진다.

평일 낮·저녁·토요일까지 다양한 시간대에 프로그램이 분포돼 직장인도 자신의 일정에 맞춰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다. 10월 20일 가을 시즌 마지막인 3차 모집이 예정돼 있다. 인기 프로그램의 경우 모집 첫날 마감되는 경우가 많으니 일정을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다.

가을 시즌의 특별한 만남

9월 9일부터 13일까지 가을 시즌 개막을 알린 오프닝 기간에는 각 장르의 대표 프로그램을 미리 경험하는 자리가 펼쳐졌다. 피아니스트 임수연과 파르텟 서울의 ‘올 어바웃 스트링스ALL ABOUT STRINGS’, 시인 김현과 싱어송라이터 시와의 ‘사랑할 때 우리가 말하(지) 않는 것들’, 미술비평가 김지연과 시인 안희연의 ‘미술낭독: 미술과 함께 더 멀리뛰기’, 첼리스트 홍진호 듀오의 ‘음악이 채워진 페이지, 클라이맥스Climax’가 가을의 첫인사를 건넸다. 이어 25일과 26일 양일간 진행된 특별 연계 프로그램 ‘창작과 공연’에서는 재즈피아니스트 진수영과 밴드 만동이 최경주 작가의 전시와 연계한 공연을 선보였다.

10월 18일에는 오는 시인이 진행하고 은희경 소설가와 김민정 시인이 게스트로 참여하는 문학 토크콘서트 ‘안녕을 나누는 사이, 가을걷이’가 준비돼 있다. 그리고 24일과 25일에는 홍세인 작가와 함께 리소 인쇄 기법으로 가을 엽서를 만드는 창작 워크숍 ‘가을 문장을 담은 리소



엽서’와 ‘가을 음악이 흐르는 리소 엽서’도 열린다. 이처럼 용산 센터는 계절마다 시기에 어울리는 감성과 주제를 담은 프로그램으로 공간 전체를 새롭게 변화시키고 있다.

모든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는 서울문화재단 누리집(sfac.or.kr)과 용산 센터 공식 인스타그램(@arteducenter_ys)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정한아트라운지’ 상설 체험은 별도 신청 없이 운영 시간 내 방문하면 되며, 특별 프로그램과 서울시민예술학교 용산 프로그램 신청은 서울시민예술학교 누리집(sfac.or.kr/asa)에서 가능하다. 문의는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용산(02.3785.3199)으로 하면 된다.

가을바람이 선선하게 불기 시작한 지금, 용산 센터에서 준비한 다정한 예술 프로그램에 참여해보는 것은 어떨까. 일상 속에서 만나는 예술을 통해 가을의 깊이와 여운을 함께 나누며 계절이 건네는 예술의 인사를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





흰 도화지 위에 강북의 문화를 함께 그리는 서강석 강북문화재단 대표이사



강북구는 1995년 도봉구로부터 분구된 자치구다. 북한산이라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4.19 혁명의 기억을 품은 지역으로 오랜 시민사회 운동을 이끈 아카데미의 역사가 있고, 삼각산 마을과 전통시장을 배경으로 다양한 축제와 예술 활동이 펼쳐지는 지역이다.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도 예술가가 많이 거주하는 강북구. 그곳에서

재단법인을 이끌어 문화를 일구는 사람은 누구일까.

군포와 하남에서 문화재단을 이끈 서강석 대표는 여러 경험을 쌓은 사람이다. 안양에서 노동 교육연구실을 운영한 경험이 있고, 축제 감독도 했다. 여러 경험 속에서 낮은 자세로 세상의 말을



들을 줄 알고, 전북 남원에서 태어나 늘 듣는 판소리에 귀명창이 됐고, 군포문화센터와 재단을 운영한 경험을 통해 예술교육과 공연장 운영에 눈을 뜬 사람, 그는 과연 어떤 철학으로 강북구의 문화와 예술을 이끌어가고 있을까.

불과 3명으로 출발한 강북문화재단은 2025년 현재 23명 구성원의 조직이 됐다. 지난해에는 '서울문화투데이'가 주관하는 문화대상 예술경영 부문을 수상했고, 올해는 지역상생·문화동행 페스타에서 강북문화재단이 주관하는 3년 차 축제인 '강북Festa'가 지역문화 우수사례상을 받았다. 또한 올해 강북구립시니어합창단은 제2회 전국골든에이지 합창경연대회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이주 작은 자치구 조직에서 빠른 속도로 지역을 선도하는 문화재단을 만든 사람, 2022년 11월 임명돼 8월 10일부로 취임 1천 일을 맞은 서강석 강북문화재단 대표이사를 만났다.

2022년부터 현재까지 강북문화재단 대표이사를 맡고 계십니다. 곧 3년이 되는데, 소감과 소회가 궁금합니다.

얼마 전 1천 일이 됐습니다. 사실 저는 몰랐는데, 직원들이 다 함께 축하해줬고요.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흐른 것 같습니다. 제가 이곳에 온 지 2년 8개월 됐는데, 그때 직원이 13명이었거든요. 지금은 용역으로 일하시는 분들까지 모두 합치면 28명입니다. 직원들이 많이 늘었지요.

지난 시간 어떤 기본으로 일하셨습니까?
중점으로 일한 부분을 중심으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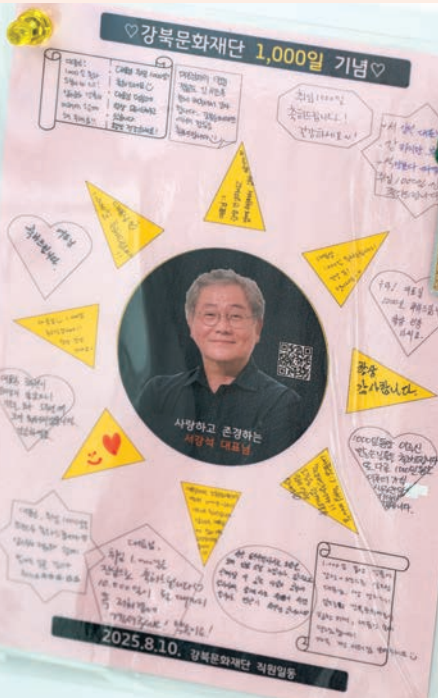
이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김승국 노원문화재단 초대 이사장(현 전통문화콘텐츠연구원장)께서 제가 강북으로 간다고 하니까 “강북은 하얀 도화지에 그림을 그리는 심정으로 일하라”고 말씀하시더군요. 그게 큰 도움이 됐습니다. 정말 도화지에 그림을 그리는 심정으로 일했습니다. 부임 첫해엔 강북문화재단의 위상과 역할을 높이는 것으로 목표를 잡았고요, 두 번째 해엔 강북 문화 도약기로 잡았습니다. 도약의 토대를 만드는 데 집중했고요, 올해는 본격적인 도약기, 내년은 확산기로 잡았습니다. 목표를 가지고 체계적으로

일했고, 그래서 2023년과 2024년 재단 설립 이후 처음으로 연속 2년 기관평가에서 가 등급(탁월)을 받았습니다.

정말 빠른 속도로 재단을 발전시킨 것 같습니다. 재단이 빠르게 자리잡는 데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고요 생각하십니까?

구청장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순희 구청장께서는 문화예술에 관심이 많을 뿐만 아니라 재단에 운영을 믿고 맡기는 편입니다. 도시관리공단이 운영하던 강북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도 재단에 맡겼습니다. 또한, 구청 문화관광과와 소통도 아주 잘 됩니다. 서로 믿고 함께하는 것이지요. 단적인 예로 재단이 2023년 우이천에서 등불 축제를 했는데, 인원이 부족하다고 하니 문화관광과 직원들이 모두 나와 안전 관리를 해줬습니다. 경광봉을 들고 안내해주는 모습은 진짜 감동이었습니다. 아마 전국적으로 사례가 없는 일일 것입니다. 이 소통과 협력이 재단이 단기간에 성장·발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강북구는 오밀조밀한 도시 구조에 낮은 건물, 전통 시장과 주민 네트워크 등 한편으로는 전통성이 살아있고, 또 한편에선 개발이 더 된 환경을 갖고 있는데요. 보시기에 강북구의 문화적 전경cultural scene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실 그 부분 때문에 강북 왔습니다. 제가 강북구를 살펴보니 4.19 묘역이 있고, 5대 명산인 북한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여기에 문화를 입히면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강북구는 인프라가 약합니다. 그 인프라는 사람으로 해결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을 육성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사람을 육성한다고 할 때, 특히 집중한 것은 무엇일까요?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전문 예술인이고, 다른 하나는 기획자를 키우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시민의 활동을 돕는 것입니다. 우선 저는 예술인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기존에 강북연극제가 있었는데, 이걸 4.19 연극제로 만들어 브랜드화 했습니다. 민주주의를 기리는 국립4.19민주묘지가 강북구 수유동에 있으니까요. 또 이순희 구청장의 대표적인 문화 공약이 지역 예술인 지원사업이었는데요. 이걸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2023년 강북페스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성과가 나기 시작하더군요. 매년 주목할 만한 사례를 말씀드리면, 첫해엔 해태 타이거즈 응원단장 이만식 씨의 이야기를 극화한 모노드라마 〈하이타이〉를 지원했는데 이게 성공해 지난해 춘천연극제에서 2관왕을 했고, 광주국제평화연극제 개막 초청작으로 올랐습니다. 또 지난해 청년 연극인들이 만든



〈사부작당〉을 지원했고, 강북페스타 무대에 오른 후 무려 27회 공연했습니다. 그리고 8월 16일 한국지역문화재단총연합회가 주관하는 2025년 지역간 우수 문화예술프로그램 교류 협력 사업에 선정돼 부산에서 2회 공연을 했습니다. 저희가 지원한 것이 6백만 원 정도인데, 어마어마한 성과를 거둔 것이지요. 그리고 올해엔 창작집단 ‘씩’이 제작한 〈환상공간〉이 에든버러 페스티벌에 초청됐습니다. 한국 최초로 에든버러 시어터 프린지 상Fringe Theatre Edinburgh Award과 아시아인 아트 어워즈Asian Art Awards 최우수 퍼포먼스상을 받았습니다.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둔 것이지요.

놀라운 성과네요. 그럼, 기획자와 시민을 위해 한 일은 무엇인가요?

기획자를 키우기 위해 지역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림책 전문가 양성 과정, 도슨트 과정, 하우스 어서 과정 등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배출된 기획자들이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입니다. 저는 무엇보다 시민 참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이 직접 하도록 합니다. 예컨대 작년 우이천 등 축제에 초등학교생들이 직접 참여해 4.19를 기념하는 419개의 등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전체 전시된 등이 1,500개인데, 자신이 만든 등은기가 막히게 찾더군요. 이렇게 주민 참여로 운영하다보니 이제 주민끼리 축제를 열기도 합니다. 올해 캠퍼스마을 축제의 경우 사업이 일몰돼 예산이 없는데요, 지역에 있는 한신대학교·사회적경제협의회·한빛예술단과 재단이 참여해 자발적으로 축제를 개최합니다. 한신대는 캠퍼스를 제공하고, 사회적경제협의회는 먹거리와 부스, 한빛예술단과 우리 재단이 공연과 홍보를 제공하는 방식이지요. 올해 축제 콘셉트가 ‘둥글게 둥글게’인데, 정말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대표가 주도하기보다 기획과 운영을 주민이나 지역 사람들에게 맡기는 편인 것 같습니다. 사실 믿음이 강하지 않으면 쉽지 않은 것인데,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제가 원래 안양에서 노동 교육연구실을 운영했습니다. 말이 노동 교실이지, 작은 문화센터 같은 것이었습니다. 풍물도 있고, 탁구장도 있고, 도서관도 있었지요. 그걸 한



10년간 운영했습니다. 그러다 군포문화센터를 맡았는데,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때 센터에는 여러 강좌가 있었는데, 그걸 잘 운영해 회원만 4천여 명에 달했습니다. 당시 문화예술교육의 모범이었지요. 그때 센터에서 운영하던 공간에 있던 식당을 바꿔 공연장으로 만들었습니다. 150석 정도 되는 작은 공연장인데, 이걸 운영하면서 공연 쪽으로 눈을 뒀습니다. 물론 공연장도 매우 모범적으로 운영됐고요. 이후 여러 체험을 했습니다. 축제 감독도 하고, 중소기업도 운영하고, 그러다 다시 군포문화재단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경력이 다양하고 독특하시네요. 그런 일들이 재단을 운영하는 데 도움을 주었을까요?

무엇보다 사람을 중요하게 보는 시각을 만들었습니다. 어떤 일이라는 게 결국, 사람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 직원들의 복지에 신경 씁니다. 복지란 무엇이겠습니까? 승진하고, 임금 더 받고, 휴가 더 많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규직 전환에 신경 썼고, 직원들의 임금 인상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직원을 위해 일하다보면, 직원은 조직을 위해 일하게 되고, 그렇게 조직도 직원도 발전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직원 외 강북구의 기획자나 예술가들과는 어떻게 협력하고 있나요?

강북에는 정말 뛰어난 기획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재단과 협력하는 정도는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껏 자세를 낮췄습니다. 저부터 마음을 열고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자주 만났습니다. 초찬 모임을 제안했습니다. 매달 한 번씩 모여 이런저런 얘기를 하자는 것이었지요. 지금은 매달 화요일과 목요일, 격월로 만납니다. 오늘도 11명 정도 모여 얘기를 했는데, 그러다보니 서로 이해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무엇보다 재단의 대표라면 마당을 만들어주는 사람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마당 안에서 사람들이 놀게 해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보호하는 장막을 쳐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대표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처음 직원들에게 민간이 하는 일을 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프로그램이 중복되면 갈등이 생기니까요. ‘파이를 키워라.’ 재단이 할 수 있는 일과 범위를 키우면 되는 것이거든요. 상대를 더 빛나게 해주면 협력과 협업은 자연스럽게 이뤄집니다. 재단은 매개자이자 촉매자, 즉 허브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재단 대표로서 기초문화재단은 어떤 방향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단은 재단답게 했으면 합니다. 직접 사업은 줄이고, 지역 사람들이 믿고 놀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는 것이지요. 저는 서울문화재단도 그렇게 해줬으면 합니다. 여러 재단이 믿고 놀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각 재단은 지역의 고유성과 정체성에 주목해야 합니다. 강북문화재단은 ‘강북다움’을 만들고, 또 다른 재단은 그 지역만의 고유성을 만들어야겠지요. 그걸 위해 필요한 것은 사람들의 역량입니다. 무엇보다 사람 중심의 재단이 됐으면 합니다.

오랜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의 얘기를 요약하면, ‘믿음과 성장’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코드로 믿어주고 밀어주는 것, 그것이 재단 운영의 방향이겠지요. 긴 시간 말씀 주서 감사합니다. 하얀 도화지 강북에 더 멋진 그림이 그려지기를 기대합니다.



‘케데헌’ 돌풍, K-콘텐츠를 다시 생각하다

〈케이팝 데몬 헌터스〉돌풍이 막 시작됐을 무렵, K-팝 대형 기획사 사람들과 만난 자리에서 작품이 화제에 올랐다. K-팝이 전 세계에서 인기인 시대에 한국에서도 이런 작품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의외였다. “우리는 절대 못 만들었을 겁니다.”

다른 이들도 이유는 조금씩 다르지만 ‘한국에선 나오기 어려운 작품’이라는 데 이견이 없었다. 케데헌은 미국 소니 픽처스 애니메이션이 제작하고, 글로벌 OTT 최강자 넷플릭스가 유통했다. 제작비는 대략 1억 달러(한화 약 1,399억 원)로 알려져 있다. 한국 영화 평균 제작비가 100억 원임을 고려하면 엄두조차 내기 힘든 규모다. 넷플릭스처럼 대규모 제작비를 투자하고 전 세계에 공급할 수 있는 토종 OTT가 없다는 점도 뼈아프다. 무엇보다 한국의 애니메이션 제작 토양과 시스템을 고려할 때 ‘악귀를 소탕하는 K-팝 아이돌’이라는 설정을 떠올릴 창작자도, 그걸 애니메이션으로 만들 제작사도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오래 남았다.

케데헌은 ‘K-콘텐츠’의 정의를 다시 생각하게 했다. 지식재산권*은 글로벌 제작사와 플랫폼이 쥐고 있지만 내용 면에선 K-콘텐츠임을 부인하기 어렵다. 한국의 사머니즘 세계관과 K-팝 시장, 아이돌과 팬덤의 아키타입을 이토록 섬세하면서도 탄탄하게 결합한 작품은 보지 못했다.

루미·미라·조이로 구성된 걸그룹 ‘헌트릭스’는 무당에서, 보이그룹 ‘사자보이즈’는 저승사자에서

모티프를 얻었다. 루미의 사인검과 미라의 곡도, 조이의 신칼 같은 무기 역시 한국의 전통 무속에서 기원했다. 루미와 진우의 메신저 역할을 하는 ‘더피’와 ‘서씨’는 민화 호작도(작호도) 속 호랑이와 까치에서 되살려냈다. 전통적 세계관에 K-팝과 현재 문화를 완벽하게 접목했다. 서울을 배경으로 주인공들이 한약방에 가서 한약을 짓고, 목욕탕에 가서 탕에 몸을 담그고, 김밥과 컵라면을 먹는 모습은 한국인의 눈에 도 크게 거슬리는 것 없이 사실적으로 표현됐다.

어설픔 흥내 내기나 문화적 맥락의 왜곡 없이 K-컬처를 오히려 잘 그려낸 데는 작품을 구상하고 직접 연출한 매기강 감독의 힘이 컸다. 소니 픽처스의 제프리 고드식 부사장은 최근 국내에서 열린 세계지식포럼에 참석해 케데헌의 성공 원인을 “대중을 사로잡을 수 있는 ‘가치 있는 오리지널 아이디어’를 찾아 헤맨 결과물”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다섯 살 때 캐나다로 이민 간 매기강 감독은 자신의 정체성을 한국인이라고 말한다. 루미가 인간과 악귀의 혼혈로 태어나 정체성에 혼란을 느끼는 설정엔 그의 이민자로서의 경험이 투영됐다. 한국의 문화를 숨김없이 보여주고 싶어 한국의 신화와 귀신학 등을 연구했다. 한국에선 익숙해서 지나쳤던 무당과 저승사자, 호작도 등을 서구의 시선으로 새롭게 조명해 매력적으로 되살려냈다. 그런 면에서 감독의 말처럼 한국 문화의 세계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경험한 크리에이터의 활용이 더 필요할지도 모른다.

케데헌 열풍은 국내에서도 적잖은 반향을 일으켰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내놓은 굿즈를 구하기 위해 ‘오픈런’을 하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케데헌 속 지역을 찾아가는 관광 투어 상품은 물론, 컵라면과 스낵 등 각종 협업 제품이 앞다퉈 출시됐다. 호랑이 더피의 인기에 힘입어 다양한 캐릭터 상품이 쏟아져 나오고, 최근 리움미술관은 상설 기획전 〈까치호랑이 호작〉도 시작했다.

물론 케데헌 작품을 계기로 우리 전통 문화에 대한 관심이 늘어난 건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해외 돌풍에 편승한 소비 현상도 가깝지, 한국 전통 문화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외국인인 한복과 한옥, 국악과 판소리, 전통무용 등에 관심을 보이는 모습에 내심 자부심을 느끼는 것과 달리 정작 우리는 일상에서 전통 문화를 제대로 향유하지 못하는 현실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조사한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결과 우리 국민의 전통예술 관람률은 여전히 한 자릿수에 머물고 있다.

우리가 전통을 일상에서 누리지 못하고, 문화적 자부심을 키우지 못한다면 ‘K-콘텐츠’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을까. 해외의 인정이나 평가가 K-콘텐츠의 기준을 대신하게 된다면 ‘K-’ 브랜드의 핵심 가치는 흔들리고 본질이 왜곡될지도 모른다. 케데헌의 성공은 K-팝과 한국 문화를 배경으로 한 이야기가 세계에서도 통할 수 있음을 증명했다. 남은 과제는 우리가 그 문화를 일상에서 살아 숨 쉬게 하고, 그 가치를 세계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려면 문화 분야의 대대적인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 온갖 분야에서 ‘K-’가 난무하는 시대에 진짜 ‘K’의 가치와 정체성, 철학을 정의하는 브랜드 아키텍처를 마련할 시점이 됐다. 전통의 원형을 유지하고 가치를 보존할 수 있는 장기적 지원책과 함께 이를 현대적으로 활용할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현재 부처와 관계 기관의 거버넌스 개편,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도 필요하다. 케데헌이 이례적인 반짝 흥행 사례가 아니라 지속적인 K-컬처 확산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까. 지금부터 우리가 가는 길에 달려있다.

축제가 끝난 뒤, 무대세트의 운명은

9월 초를 기해 유럽의 많은 축제가 막을 내렸다. 아티스트와 관객은 각자의 나라로 돌아가고, 축제 팀은 휴식을 취한 뒤 곧 다음 해를 준비한다. 그러나 사람은 떠나도 무대는 스스로 떠날 수 없는 법. 여름을 수놓던 화려한 무대 세트는 전부 어디로 가는 걸까? 그중에서도 가장 큰 규모의 공연예술인 오페라 페스티벌의 경우는? 오페라는 기악 연주와 달리 작품마다 무대·의상·조명 등을 기획·제작해야 하는 데다, 같은 작품을 매번 재연할 수 없어 후처리 역시 길고 복잡하다.

특히 대규모 축제일수록 다양성을 위해 매년 새 프로덕션과 현대 작곡가의 신작을 선보이기 때문에 제작 규모는 더 늘어나는 추세다. 게다가 현대 프로덕션은 인지도가 낮기 때문에 고전 작품의 현대 연출보다 재공연되는 수가 현저히 적다. 보관해야 할 작품이 늘어난다. 모든 산업 분야에 있어 지속 가능한 운영이 현안이 된 지금, ‘시간 예술’ 즉 상연 후 사라지고 마는 공연예술의 사후 무대세트 처리는 극장과 축제의 주요 사안이다.

지속 가능성과 환경을 고려한

프랑스에서 가장 큰 오페라 축제인 엑상프로방스 페스티벌은 2012년부터 지속 가능한 개발을 전담하는 부서를 운영하고 있다. 무대 제작과 시공·철거에 발생하는 수십 톤의 폐기물을 줄이는 데 큰 공을 세우는 중이다. 출범 당시 책임자인 베로니크 페르메Véronique Fermé는 “탄소 배출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교통은 페스티벌이 관여할 수 없기에,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무대 디자인과 제작에 집중하기로 했다. 무대 제작·조립·해체·폐기 과정에서 많은 폐기물이 발생하며, 탄소 배출이 크기 때문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

축제 측은 무대에 필수적인 하중 지지 재료인 폴리스티렌 대신 재활용 가능한 대체제를 연구한다. 2017년 <카르멘> 프로덕션은 접착제 없이 나사로만 조립한 나무 프레임을 사용했다. 따라서 해체 후 어떤 프로덕션이라도 재사용할 수

있다. 또 프랑스·벨기에의 오페라 극장 연합인 ‘콜렉티프Collectif 17H25’ 일원으로 극장 간 프로덕션 공유를 돕는 표준 세트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 예컨대 2021년 초연한 배리 코스키Barrie Kosky 연출 <금계>의 경우 재조립이 가능한 모듈식 플랫폼을 기반으로, 강에서 건진 나뭇가지와 빗자루로 초원을 연출한 무대를 선보였다.

나아가 페스티벌은 2022년부터 연출 및 무대 디자이너와 계약에 ‘친환경’ 조항을 포함했다. 세트는 이제 제작 단계부터 재활용을 염두에 두기 때문에 상당수가 보관·판매 및 재사용된다. 쓰임이 다한 의상·소품은 아마추어 제작자나 신진 디자이너에게 낮은 가격에 재판매된다. 무대 장치를 매입·재판매하는 전문 회사도 있다. 예를 들어 프랑스의 ‘아트스톡ArtStock’은 9천㎡의 물류 공간을 운영하며 상젤리제 극장·툴루즈 오페라 등과 거래한다.



↑ 페스티벌을 위한 호수 위 무대를 만드는 모습 ©Bregenzer Festspiele/Lisa Mathis
← 브레겐츠 페스티벌 프로덕션 <마탄의 사수> ©Bregenzer Festspiele/Ralph Larmann

모차르트의 고향에서 열리는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은 올해 45일간 9편 프로덕션 및 콘서트로 구성됐다. 초연 프로덕션은 3편. 축제 측은 “잘츠부르크와 그 주변에 총면적 약 1만㎡의 보관소를 운영한다. 세트는 재공연, 공동 제작 또는 대여에 필요한 기간 동안 보관되며, 재공연할 경우 복원해 진행한다. 페스티벌은 자체 및 자원의 책임감 있는 사용을 염두에 둔다. 목재·금속·직물 등 재료는 분리해 재활용하고 부품은 재사용한다. 폐기는 더 이상 예술적·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을 때 한해 이뤄진다”라고 전했다.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은 현재 ‘페스티벌 지구 Festspielbezirk 2030’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지속 가능한 문화를 구축하고자 페스티벌 홀과 인프라를 확장하는 프로젝트로, 제작소와 보관소도 늘린다. 또 작품은 공동 제작·대여를 통해 전 세계 파트너 오페라하우스 및 페스티벌과 공유한다. 이는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만 아니라 국제 예술 교류도

증진한다. 무엇보다 잘츠부르크는 자매 행사인 잘츠부르크 부활절 페스티벌과 작품을 공유하는 장점도 있다.

오랜 역사를 토대로, 아레나 디 베로나

1913년 시작된 아레나 디 베로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큰 오페라 페스티벌 중 하나다. 로마 시대의 원형 경기장에서 시즌당 약 5~8편의 오페라가 돌아가며 오른다. 회당 관객은 약 3만 명. 무대 규모도 가로 75미터 세로 44미터로, 일반 극장의 두세 배에 달한다. 따라서 무대세트의 공동 제작이 어렵고 새로운 프로덕션을 자주 선보일 경우 보관에도 제약이 따른다.

이에 축제는 두 가지 기조를 유지한다. 첫째, 프로덕션은 대개 5~15년 주기로 재연되며 일부 연출은 수십 년, 심지어 100년 이상 가기도 한다. 올해 오른 우고 데 아나Hugo de Ana의 연출 <라트라비아타>는 이미 2011년 초연, 2016년 재연된 작품이다. 지난해 공연한 <아이다>는 무려 1913년 프로덕션이다. 그 외 인기가 많은 프랑코 체피렐리Franco Zeffirelli의 연출작을 여럿 유지하고 있는데, 1995년 작 <카르멘>은 지금까지 15번 재공연됐다. 오랜 역사만큼 세트 보관·운송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갖추고 있다. 이는 두 번째 기조와도 이어진다. 내부 제작소와 제작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 페스티벌 측은 베로나 근교에 1만㎡의 제작 보관소를 운영한다. 상주 인력만 약 250명이며 여름에는 1,400명까지 늘어난다. 보관된 의상은 4,500벌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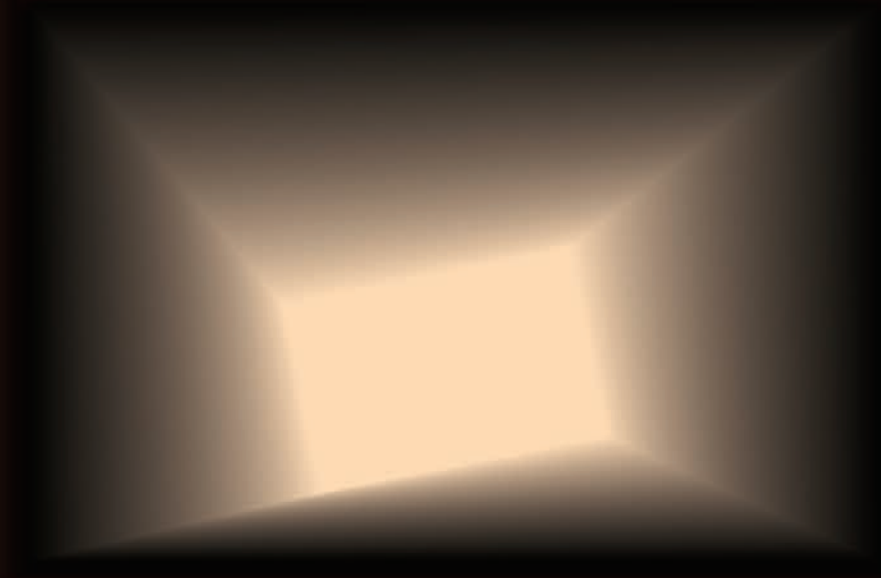
한편 브레겐츠 페스티벌은 호수 위에 쌓아 올린 무대에서 매년 여름 한 편의 오페라를 5주간 공연하는 독특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호수라는 공간은 굉장히 매력적인 요소지만, 반면 무대 설치와 해체가 어렵다. 페스티벌은 2년마다 작품을 바꾸는데, 준비부터 공연까지 평균 3~4년이 걸리며, 실제 제작은 6~7개월간 이뤄진다. 제작 참여 인원은 400~500명 정도. 축제 후에는 폐기하는 대신 2개월여 시간과 50~60명의 노동력을 들여 해체·재활용하는 데 중점을 둔다. 기술감독 볼프강 우르슈타트Wolfgang Urstadt는 “페스티벌 하우스에는 내부 보관소가 있고, 건물 외부에 마련된 홀에 기타 부품을 보관한다. 음향 장비와 자체 자재는 유지 보수 후 보관하며, 조명은 대여해 사용한다”고 전했다.



2025 서울연극창작센터

2025. OPEN:LAB THEATER

10.24. FRI — 11.22. SAT



우주배경복사
듀공아

10. 24. FRI 19:30
10. 25. SAT 15:00



빠꼼빠꼼
엘보우

10. 31. FRI 19:30
11. 01. SAT 16:00



갯물
조이재

11. 07. FRI 19:30
11. 08. SAT 14:00, 17:00



멜라닌
실한

11. 13. THU 19:30
11. 14. FRI 19:30
11. 15. SAT 15:00



음악연극 마사
컴퍼니보라

11. 22. SAT 15:00

SEOUL MVS SOUL

서울문화재단

서울연극창작센터

서울어티페스타

re:stage seoul

OPEN

현대음악에 주파수를 맞추면

새소리와 영원 사이에서, 메시아의 아름다운 불가능성

동시대적 고전 읽기

우리 시대에 끌어올린 '근원적 비극'

스크린 너머의 세상

너무 시끄러운 고독

춤, 이면의 몸짓

몸에서 몸으로 전해진 기억의 잔향

새소리와 영원 사이에서, 메시앙의 아름다운 불가능성

신예슬 음악평론가

시미언 피스 체니Simeon Pease Cheney의 아름다운 새소리 청취록, 『야생 숲의 노트』 서문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지난여름 어느 날 아침, 되새chewink가 내가 오래된 회의 음악이라고 이름 지은 아름다운 곡조로 노래하는 것을 들었다. 다른 어떤 되새들도 그 곡조로 노래하는 것을 들은 적이 없지만, 그때 노래하던 그 되새는 같은 새라도 얼마나 다양하게 노래할 수 있는지 놀라운 증명을 해 주었다. 박새는 몇 개의 긴 음으로 신중하게 노래한다. 천국이 이보다 더 순수할까.”

음악가들이 세계의 소리를 유심히 듣고 경탄하는 것은 꽤 낯설지 않은 일이지만, 어떤 음악가들은 그 지점을 좀 더 깊게 파고든다. 그런 이들은 음악이 인간의 창조물이 아니라, 세계가 들려준 것을 인간이 듣고 포착한 것이 음악이라고 믿는다. 그런 믿음 속에서 살아온 시미언 피스 체니가 마치 인류학자가 민족지를

남기듯 새소리를 꾸준히 채보하고 그 채보 상황을 자세히 기술했다면, 그 이후 세대는 그보다 한 발짝 더 나아간 작업을 선보인다. 바로 새소리로 이루어진 ‘음악’을 만드는 것이다.

올리비에 메시앙Olivier Messiaen은 프랑스 아비뇽 출신의 작곡가이자 오르가니스트, 그리고 조류 연구자였다. 정교한 리듬 기법과 조성 이전의 선법을 폭넓게 사용했고, 독실한 가톨릭 신자인 만큼 종교적 심상으로 가득한 작품을 다수 남겼다. 세계를 누군가의 창조물로 바라보고, 그 안에서 시간의 흐름을 세심하게 운용하는 데 깊은 관심이 있던 메시앙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대상 중 하나는 ‘새소리’였다. 소리 그 자체가 음향적으로 아름답기 때문이기도 했겠지만, 메시앙의 세계관에서 ‘성령’이 새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경우가 더러 있었다는 점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메시앙 또한 시미언 피스 체니처럼 빈 오선보를 들고 자연으로 나가 새소리를 채보했고, 그런 경험들은 그의 음악 곳곳에 깊게 반영되었다. 그중 하나가 바로 피아노곡 ‘새의 카탈로그’다.

‘새의 카탈로그’는 새들에 관한 ‘음향적 생태보고서’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새소리를 집요하게 관찰한 작품이다. 숲중다리·알프스 노랑부리 까마귀·바다직박구리 등 수십 종의 새소리를 포착한 이 음악은 ‘새소리’라 뭉뚱그려져 있던 영역 안에 얼마나 많은 존재가 있고, 그들 각자가 얼마나 고유한 소리를 지니고 있었는지를 낱알이 들려준다. 실제로 들려오는 새소리를 자세히 채보해 만든 이 곡들에서는 종마다 다른 음정 체계와 비대칭적인 리듬, 미세한 장식음까지 각 새가 지닌 특성이 선연히 드러나지만, 이 작품이 새소리를 그대로 옮겨오는 데 그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황금 피꼬리Le Loriot’에서는 그 새소리가 피아노 음향으로 변환되어 울려 퍼지지만 여기서 더 나아가 메시앙은 “유동적이고, 금빛이며, 이국 왕자의 웃음과 같고, 아프리카나 아시아, 혹은 무지개빛으로 가득하고 레오나르도 다 빈치의 미소들이 떠오르는 어떤 알려지지 않은 세계”를 떠올린다. ‘새의 카탈로그’는 그렇게 새소리로부터 메시앙의 심상, 나아가 때로는 새소리가 일순간 연상케 하는 그 서식지의 풍경까지를 모두 한자리에 불러와 일렁이게 한다.

메시앙의 음악에서 새소리가 들려오는 것은 ‘새의 카탈로그’만이 아니다. 메시앙이 포루수용소에서 작곡하고 초연한 ‘시간의 종말을 위한 사중주’는 제목 그대로 시간이 종말을 맞이하는 과정을 다루는 작품이다. 시간의 종말은 인간에게 주어진 세계, 메시앙 자신의 삶이 끝나는 시점을 이야기하는 것인 동시에 그가 믿은 신의

세계는 영원을 약속하는 곳이다. 그런 맥락에서 시간의 종말로 향하는 과정에는 무엇인가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영원에 도달하려는 것만 같은 긴소리가 들려온다. 그리고 그렇게 시간의 종말이자 영원으로 향하는 여정의 한순간에는 새소리가 가득한 풍경이 펼쳐진다. ‘새들의 심연’이라 이름 붙인 악장에서 메시앙은 이렇게 쓴다. “심연, 그것은 시간이다. 그 슬픔과 권태를 지닌 시간. 새들은 시간의 정반대다. 그것은 빛과 별, 무지개, 그리고 환희에 찬 보칼리제(지저귀)를 향한 우리의 욕망이다.” 메시앙에게 새는 음향적인 탐구 대상이자 창조자의 메시지를 전하는 전령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시간에 반하는 존재이기도 한 것이다.

다분히 종교적이고 신비로우며 수수께끼 같은 메시앙의 이 생각을 고스란히 받아들여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우리는 새소리가 담긴 작품들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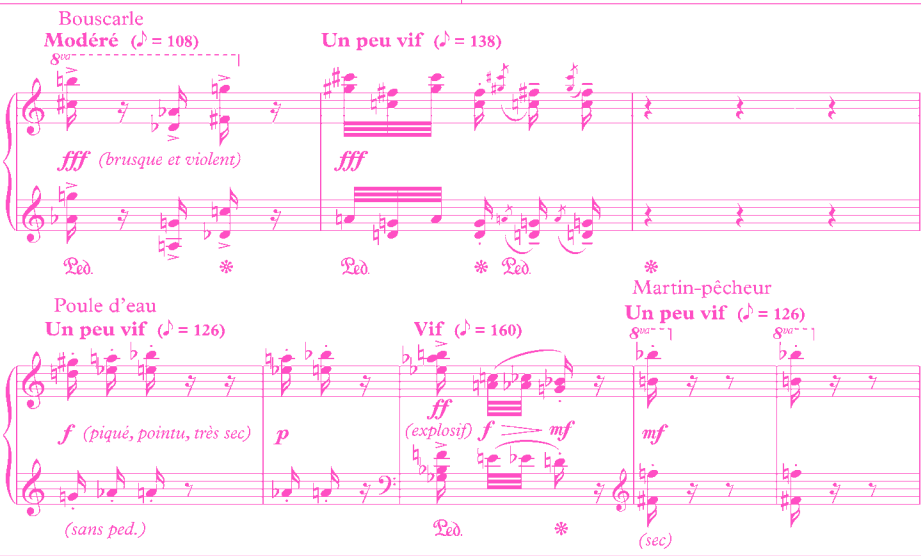
메시앙이 품고 있던 마음을 마주할 수 있다. 하나는 새소리를 채보한 것처럼 세계를 있는 그대로 기록하려는 의지이고, 다른 하나는 시간 바깥의 세계를 꿈꾸는 열망이다. 유한한 인간 조건 안에서 펼쳐지는 인간의 음악이 근본적으로 이런 바람을 완전히 성취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메시앙의 음악은 때론 자연 그 자체가 현현하는 것처럼 들리고, 때로는 시간을 초월한 영원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자연의 복잡성은 음악에 온전히 담길 수 없고, 우리는 결코 영원을 소유하지 못하지만, 그의 작품 속에서 자연과 영원이 잠시 출현하는 순간을 경험한다. 유한한 몸과 음악으로, 자연과 영원을 더듬어보려는 어떤 음악가의 몸짓. 메시앙의 음악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바로 이 실현 불가능한 것을 향해 손을 뻗는 몸짓이다.

우리 시대에 끌어올린 ‘근원적 비극’

전영지 공연칼럼니스트·드라마터그

‘우리와 크게 다르지는 않으나 우리보다는 어딘가 뛰어나다고 할 법한 인물의 운명이



어떤 과오나 결함으로 인해 행복에서 불행으로 바뀌게 되는 일.’ 일찍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내린 비극tragedy에 대한 정의다. 비극,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아이스킬로스·소포클레스·에우리피데스와 같이 고대 그리스비극의 전성기, 아테네 시민에게 사랑받은 극작가의 작품들은 위와 같은 공식으로 꿰어질 수 있노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신의 귀납적 연구서 『시학』¹⁾ Poetica에 남겼다. 그런데 잠깐, 비극의 주인공은 어떠해야 한다고? ‘우리보다 뛰어난 사람’이라고? ‘우리’는 누구이며 ‘뛰어나다’는 건 어떤 것이란 말인가. 인류 최초의 문학 비평서가 이처럼 쉬이 합의하거나 폐기하기에는 너무도 느슨한 정의를 남겼으니, 비극이 끊임없이 재고찰되고 그 유효성 또한 거듭 질문되는 것은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비극은 죽었는가?”라는 질문으로 시작하는 영국의 저명한 비평가, 테리 이글턴Terry Eagleton의 『비극Tragedy』은 전작 『우리 시대의 비극론Sweet Violence: The Idea of the Tragic』에 이어 동시대 비극의 자리를 묻는 문학 연구서다. 이글턴의 논의는 예술 형식으로서 ‘비극’은 통용 가능한 추상적 형식이라기보다는 고대 그리스 시대의 고유한 조건 속에서 성립된 “문화적 형성물”이라는 정의에서 시작해, 과학과 계몽의 세례를 받은 근대가 도래하면서 ‘진정한 비극’은 불가능해졌다고 주장해온 수많은 논평가와 대화하듯 전개되며, 그 과정에서 비극의 ‘생사 문제’가 진단된다. 이글턴의 진단은 ‘생生’. 고통과 슬픔이 있는 한 비극은 끝나지 않을 것이며, 근대성은 비극을 소멸시킨 것이 아니라 변형시켰을 뿐이라고 판단하는 것이다.

기실 이글턴은 근대성이야말로 비극을 촉진했다고 주장한다. “세계화된 행성[의] 뻘뻘한 연결망 안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에게 피해를 줄지도 모른다는 원죄 감각이 복귀”하고 있으며, “이 행성이 인간의 궁극적으로 오만한 행동들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위기의식 또한 확산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근대성의 어두운 유산이 그리스비극의 토대가 된 작고 긴밀한 ‘도시 공동체polis’의 조건을 전 지구적으로 확장했다는 것일 터. 근대가 빚어 놓은 참담한 현실은 역설적으로 비극이—번역가 정영목의 표현을 빌리자면—“지금 우리가 사는 곳의 중심 문제를 감당”하는 예술 형식으로 귀환하기를 추동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더 나아가, 폴리스의 문제와 정면 대결한 결과로 탄생한 고대 그리스비극 작품들을 통해 우리 시대 인류 공동체의 문제를 조망하는 것 또한 유의미한 기획이지 않을까?

국립극단이 2025년 10월부터 2년에 걸쳐 무대화할 예정인 <안트로폴리스 5부작Anthropolis I-V>은 위와 같은 질문에 응답하는 야심 찬 기획으로 읽힌다. 2023년 도이체스 샤우슈필하우스에서 5일간 관람해야 하는 ‘마라톤 연극’으로 초연된 이 작품은 2021년 코로나19 팬데믹의 한복판, 작가 롤란트 시멜페니히Roland Schimmelpfennig의 착상에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팬데믹이 상기한 것이 무엇보다도 전 지구적 연결성이라는 걸 기억할 때, ‘인류세’를 뜻하는 단어 ‘Anthropozän’과 ‘도시공동체’를 의미하는 ‘Polis’를 결합한 ‘안트로폴리스’라는 제목의 대작을 떠올렸다는 것이 참으로 절묘하게 다가온다. 재난의 한가운데에서 함께 몰락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야 절감하게 된 이 거대한 인류 공동체의 이야기를 해 보겠다니! 그러나 감탄은 잠시, 더욱 시간을 들여 생각하게 되는 것은 시멜페니히가 이 이야기를 위해 일련의 고대 그리스비극 작품, 특히 테베를 배경으로 하는 작품들을 소환했다는 사실일 것이다.

시멜페니히가 <안트로폴리스>를 위해 소환한 아이스킬로스의 <테바이를 공격한 일곱 장수>, 소포클레스의 <오이디푸스 왕>과 <안티고네>, 에우리피데스의 <박코스의 여신도들>은 모두 테베의 왕가, 카드모스 가문에 관한 이야기다.



© 국립극단

왜 아테네의 작가들이 테베 왕가의 이야기를 이토록 자주, 그리고 암울하게 다루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제기되지만, 숨은 의도가 무엇이든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전해진 테베 소재 그리스비극 작품들은 창작자도, 관객도 이야기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이다. 하여 작가들은 이야기의 외부인으로서 테베를 실제 역사와는 무관하게 참혹하디 참혹하게 구성할 수 있었고, 아테네의 관객은 안전한 거리를 유지한 채 평온하게 ‘인간성의 본질’ 등을 성찰할 수 있었을 터다.

하나 <안트로폴리스>를 마주한 우리는 그리 태평할 수 없다. “근원적 비극의 장radical tragic terrain”(프로마 제틀린Froma I. Zeitlin)이라고 불리는 아테네 극작가들의 작품 속 테베를 ‘인류세의 도시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호출하고 있으니 말이다. 파괴된 옛 도시, 몰락한 도시 공동체가 다른 누구의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미래라는 무정한 예언. 다시 돌아온 비극에서는 그런 예언이 들리고, 그것을 애써 부정하는 나를 발견한다. 하나, 부인하려 들면 어찌될까? <안트로폴리스> 5부작의 첫 번째 작품 <디오니소스>는 답한다. 디오니소스를 부정하다 바로 그 디오니소스에 의해 광기에 사로잡힌 어머니의 손에 찢겨 죽는 팬테우스가, 그의 조카난 육신이 나의 최후임을 직감한다. 비극의 기원이 바로

‘디오니소스 신에게 바친 제의로서의 노래’라고 하니 말이다. 심지어 <디오니소스>의 원작, 에우리피데스의 <박코스의 여신도들>은 결말 부분이 유실되어 다른 곳에 인용된 것들을 모아 붙여놓은 것이 전해질 뿐인데도, 대부분의 고대 그리스비극 작품에는 그 부분에 희생자에 대한 제의가 존재하는 데도, 시멜페니히는 메꿔 쓰지 않는 선택을 한다. 그렇게 전해진 이야기가 인류가 지금껏 문명을 써온 방식이라는 선언처럼, 무정한 결말을 그대로 남겨둔다.

“문명은 내부적으로는 억압, 외부적으로는 정복으로 시작한다”(스탠리 다이아몬드Stanley Diamond)고 했던가. 테베에서 태어나 먼 여정을 끝내고 테베로 귀환한 디오니소스는 내부인이자 외부인인지라 한데 뒤엉킨 억압과 정복이 그를 뒤따른다. 그러나 새로운 것은 낡은 것의 멸절 없이는 탄생할 수 없고, 낡은 것 또한 추하기는 매한가지인지라 온전히 디오니소스를 비난할 수도 없다. 이야기의 시간과 우리의 현재 사이 반복된 억압과 정복을 기억하며 우리의 문명이 시작되는 것을 우두커니 지켜볼 뿐이다. 마치 새하얗고 커다란 황소의 모습으로 다가온 제우스를 따라 지중해를 건너 ‘문명의 시작’을 알린 에우로파가 떠난 길을 돌아보듯, 무심하게 되돌아볼 뿐이다.

진정 비극이 이 시대의 핵심적인 예술 형식으로 귀환할 수 있다면, 그것은 분명 불길한 일일 것이다. 근대의 과학과 계몽, 민주와 평등의 기치가 실패했다는 것을, 마르크스주의와 기독교가 약속한 희망과 구원에 대한 기대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을, 설명할 길 없으나 돌이킬 수도 없는 결말과 마주하고 있다는 것을 뜻할 테니 말이다. 진정한 비극에 환각적 화해의 자리는 없다는 말이다. 이처럼 어떤 고전이 각색 없이 돌아온다면, 어떤 시대의 고유한 양식이 수정 없이 이 시대를 위한 예술 형식으로 복귀할 수 있다면, 그것은 그 자체로 비극일지도 모른다고 〈안트로폴리스〉시리즈의 첫 작품을 함께 하며 생각했다. 때마침, 보이는 자리마다 반복되는 역사에 지독한 환멸이 느껴지던 시절이었다. 이 세계의 몰락은 필연이라는 경고음이 쉼 없이 울리는 듯했다.

너무 시끄러운 고독

이다혜 작가·씨네21 기자

“좀 다르게 살고 싶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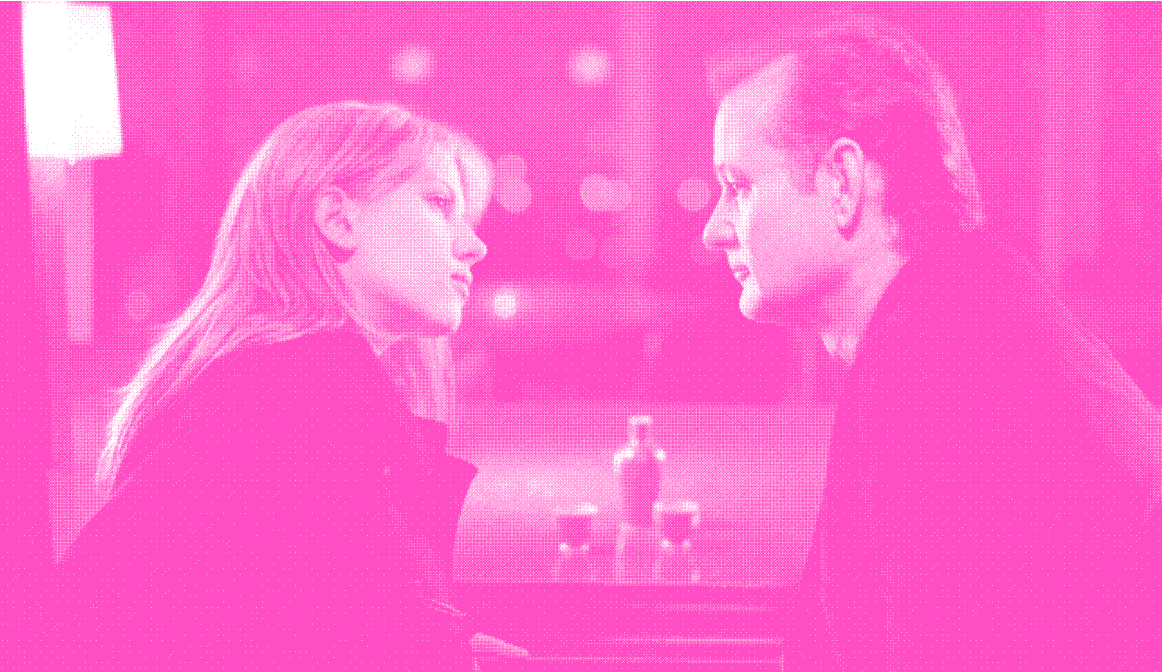
불쑥 그런 말이 나온다. “건강도 좀 챙기고, 먹는 것도 바꿔야겠어.” 수화기 너머에서는 그의 말을 진지하게 듣는 분위기가 아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하다가 바쁘다고 끊자고 하는 아내에게 배우 밥(빌 머리 분)은 별다른 말을 하지 않는다. 오가는 대화는 정해진 경로를 벗어나선 안 된다. 오래된 관계가 유지되는 모범 답안이 그렇다. ‘다르게’라는 말은 모호하고 예측되지 않는 것. ‘다르게’를 원할 순 있지만, 원한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밥은 가족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다르게’를 떠올린 참이다. 그는 ‘다르게’를 다시 주머니 안에 깊이 밀어 넣고 술을 마시러 가서 옆자리에 앉은 여자와 하룻밤을 보낸다.

낯선 도시에서 시간을 보내야 하게 된 두 사람의 이야기는 제법 건강한 고독과 아무래도 괴로운 외로움을 오가지만 아무래도 후자 쪽에 무게추가 기울다. 소피아 코폴라Sofia Coppola 감독의 〈사랑도 통역이 되나요?〉의 원제는 ‘Lost in Translation’. ‘잘못된 제목’으로 찍 자주 언급되는 이 작품의 영어 제목은 ‘통역하면서 사라지는(사라진) 것들’을 뜻하기도, 그래서 ‘통역의 불가능성’을 뜻하기도 한다. 미국인인 두 주인공이 말이 통하지 않는 일본 도쿄에서 우연히 만난 짧은 시간을 담아낸 이야기이니만큼, ‘통역’이라는 단어는 관계의 불통을 설명하기에 제법 그럴듯해 보인다. 다른 언어를 쓰는 곳에 갔더니 말이 안 통하고 답답하더라는 이야기. 하지만 이 영화에서 결정적인 불통은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 심지어 가장 가깝다고 여겨지는 가족 사이에서 생겨난다. 예를 들어, “좀 다르게

살고 싶어” 같은 말. ‘다르게’를 원한다는 것은 지금 가진 것을 바꾸고 싶다는 말이고, 지금 가까운 사람에게 그 표현은 공격적으로 다가오기 마련이다.

밥은 한때 잘나가던 배우다. 그의 주요 수입원에는 일본에서의 맥주 광고가 포함된다. 광고 촬영을 위해 도쿄 출장을 온 밥은 꺾충하게 솟은 키처럼 도시를 오가는 빼곡한 사람들 사이에서 고립된 듯 보인다. 도쿄에서 그만 혼자인 건 아니다. 샬럿(스칼릿 조헨슨 분)은 사진작가인 남편을 따라 도쿄에 방문한 참이다. 남편은 늘 바쁘게 돌아다니지만 샬럿은 뻘한 관광지를 좀 다니고 나니 호텔에 틀어박혀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진다. 심지어 남편은 여자 배우와도 미묘한 사이처럼 보인다. 그런 샬럿과 밥은 한 호텔에서 지내고 있었다.



우연한 기회로 대화를 나눈 두 사람은 종종 시간을 같이 보내기 시작한다.

〈사랑도 통역이 되나요?〉가 로맨스에 대한 영화인가? 그렇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언제나, 언제나, 언제나 내게 이 영화는 외로움에 대한 이야기다. 사랑이라는 형태를 한 외로움이라고도 부를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나는 당신에게 빠져들었다. 그때의 나였기 때문에 나는 당신에게 빠져들었다. 그들이 마주치는 장소가 낯선 도시의 호텔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운명적이다.

계절이 바뀌어서, 새로워지고 싶다고 생각했다. 다른 공기 속에서 다른 것들을 눈에 담을 수 있는 시도가 여행이기 때문에 가능한 자주 여행하려고 노력하는 나는

〈사랑도 통역이 되나요?〉의 풍경 속에서 호텔이라는 공간이 가진 광택에 끌렸다. 도쿄에서는 모든 것이 반짝거린다. 밤거리의 네온 불빛은 어지럽게 뒤엉킨 불꽃놀이 같다. (영화에서처럼 고급) 호텔에서는 모든 물건이 손자국 없는 광택을 지닌다. 지나다니는 자동차들은 종종 거울처럼 도심의 밤 풍경을 반사해낸다. 대도시에서 빛은, 때로 절제되고 때로 과장되며 우리의 시선을 분산시킨다. 그렇게 빛나는 것들은 우리를 끌어당기고 또 소외시킨다. 매일 반복되던 풍경 속에서는 어렵지 않던 ‘어제처럼’ 살아가는 일이 갑자기 덜컥거리며 멈춰 서는 것이다. 사소한 몸짓들마저 질문으로 이어진다. 이 질문에 공명할 수 있는 누군가가 없다는 것이 유달리 쓸쓸하게 느껴진다.

그곳에서 유머 감각이 비슷한, 같은 나라에서 온 두 사람이 만난다. 밥과 샬럿은 그렇게 가까워진다. 성적 긴장이 ‘없지는 않다’는 수준으로 찰박거리는 이 둘의 만남은 도쿄 탐색으로 이어지지만, 외부 세계를 탐색하는 것만큼이나 내면의 무언가를 꺼내놓는 일이 중요해 보인다. 그들이 인생을 건 중요한 대화를 한다는 뜻은 아니다. 다만, 필요할 때 거기 있어주는 사람과 아무 말이나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쪽에 가깝다. 마치 외로움을 의인화한 것 같은 스칼릿 조헨슨과 빌 머리의 표정은 자주 백지처럼 느껴진다. 기분을 읽기가 쉽지 않아서다. 활짝 웃는 얼굴일 때 오히려 가면을 쓴 것 같다.

애매한 친구처럼 어울리던 둘에게도 관계의 끝은 온다. 드디어 밥이 귀국해야 하는 날이 찾아왔으니까.

소피아 코폴라 감독은 〈그녀Her〉를 만든 스파이크 존즈Spike Jonze 감독과 한때 부부였다. 〈사랑도 통역이 되나요?〉가 개봉했을 때 이 영화가 둘의 부부관계에 대한 이야기라는 뒷말이 제법 돌았다. 샬럿의 남편과 얹히는 여자 배우가 실제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실명이 오갔다. 그런데 소피아 코폴라는 〈사랑도 통역이 되나요?〉를 (소문에 의하면 ‘자캐’일) 샬럿의 입장에서 진행시키지 않았다. 샬럿과 밥은 거의 동등한 분량이며, 오히려 밥의 심리아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심지어 마지막 장면에서 대사를 하는 사람도 밥이다. 마지막, 도쿄를 떠나던 밥은 차창 밖으로 보이는 샬럿을 보고 급하게 차를 세워달라고 한다. 그리고 그들은 마지막으로 마주 서고, 포옹한다. 샬럿을 꼭 끌어안은 밥은 얼굴을 샬럿의 머리에 파묻다시피 하고 무언가를 속삭인다. 우리에게 그 말은 영원히 들리지 않는다. 엉뚱한 상상이 들었다. 어쩌면 샬럿보다 세상 경험이 많은 밥은 영화를 만드는 시점의 소피아 코폴라 자신이 아닐까. 어떤 외로움은 삶에서 떨쳐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

몇 년 뒤 스파이크 존즈는 스칼릿 조헨슨을 목소리 출연시킨 〈그녀〉를 만들었다. 이 영화는 이혼한 남자가 인공지능 운영체제 사만다와 사랑에 빠지는

이야기다. 두 영화가 ‘도심, 외로움, 대화’를 둘러싼 즐거움과 이별을 탐색하는 방식은 나란하지만 만나지 않는 평행선처럼 보인다. 두 영화 모두 이별을 다루지만 내젠 언제나 〈사랑도 통역이 되나요?〉의 이별 쪽이 더 선선하게 다가온다. 어떤 진심은 영원을 기약하지 않아서 깊어진다. 거기에 굳이 사랑이라는 말을 보태지 않으며.

*이 글의 제목은 보후밀 흐라발Bohumil Hrabal의 소설 제목 ‘너무 시끄러운 고독’에서 가져왔다.

몸에서 몸으로 전해진 기억의 잔향

김태희 무용평론가

오늘날 탄생하는 춤은 동시대에 어울리는 미감을 지니거나 현대인의 취향을 반영하기를 으레 요구받는다. 예술은 고고한 박물관의 소장품이 아니라 사람,

그리고 이들이 만들어가는 사회와 생동할 때 빛을 발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전위적이고 추상적인 예술만이 높은 평가를 받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춤을 추는 사람, 무용수의 몸짓에 깊은 곳에 내재해 있는 기억을 불러올 때 예술의 가치는 새로이 발견된다. 몸에서 몸으로 전해지는 춤, 그 이면의 몸짓은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것까지 전부 담고 있는 기록 그 자체다.

전통춤은 단순한 과거의 예술 양식에 지나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 공동체의 의례와 삶의 방식이 새겨진 몸의 기록이다. 한국무용·발레·현대무용 삼분법에 따른 한국춤이 아니라 시대를 거듭하며 이른바 ‘전통’으로 불리게 된 몸짓을 통해 선대의 기억을 불러 모은다. 오늘날 예술가들이 무대 위로 소환한 전통춤의 요소는 단순한 차용이 아니다. 오히려 태곳적부터 내재해온, ‘기본’이라 불리는 본질에 가깝다고 할 것이다.

춤, 몸짓은 기억의 잔향을 불러일으킨다. 그리고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라는 익숙한 기치처럼, 예술가 개인과 그 문화권의 전통이 동시대의 춤에서 발견될 때 강한 소구성을 드러낸다.



©Fan Xi/No Dance Theater

한국과 중국·일본·홍콩·대만에 이르기까지 동아시아권의 문화와 전통은 개별의 고유성을 지니는 동시에 구성원 모두에게 익숙한 보편성을 띤다. 그래서일까, 오늘날 예술가에 의해 마주하는 춤에서 아시아의 색채를 발견하는 일이 반갑고 즐겁다. 그러한 춤에서 장르 구분을 떠나 통용되는 요소들은 자연스레 무대 위 몸의 서사로 이어진다.

한국의 무용가들이 자연의 이치에서 영감을 받거나 ‘정중동’으로 대표되는 한국춤의 기운에서 모티프를 얻듯, 중화권 무용가들은 동양 사상에 천착한 작품을 자주 발표한다. 명상, 호흡, 무술, 그리고 현대적인 움직임을 접목해 동양의 색채가 뚜렷한 작품을 다수 발표하며 세계의 주목을 받은 린화이민Lin Hwai-min의 클라우드 게이트 댄스 시어터가 대표적이다.

중국 태생으로 23세 나이에 자신의 이름을 딴 단체를 창립하며 꾸준히 자신만의 작업을 선보이고 있는 안무가 타오 예Tao Ye는 움직임을 반복하고 제한하는 자신만의 방식을 통해 미니멀리즘 양식의 작품을 만들어간다. 2, 4, 5, 6, 7, 8... 현재 17까지 이어진 숫자 시리즈가 대표적이며, 과도한 움직임과 의도된 동작을 지양하고 신체 구조에서 자연스럽게 발현되는 리듬에 충실할 것을 지시한다.

그의 작품 가운데 2024년 초연한 〈16〉은 제목처럼 열여섯 명의 무용수가 한 줄로 등장해 물 흐르듯 유동하고, 원을 그리며, 행진하는 움직임을 수행한다. 춘절이면 악귀를 쫓고 복을 기원하기 위해 중국 각지에서 펼쳐던 용춤의 움직임에서 모티프를 얻었다. 우리 전통춤에도 동물을 흉내 내는 데서 착안한 춤이 여럿 존재한다. 궁중에서 공연된 학연화대합설무와 박점무가 있고, 민간에서 전승된 동래학춤과 사자춤도 전해진다. 그것이 전통이라는 이름 아래 보존되고 있다면, 타오 예가 안무한 춤은 전통의 모티프만을

간직한 채 완전히 새로운 착상을 보여준다.

막대기에 매달린 용 모양 인형이 사람들의 움직임에 의해 춤추듯 보이는 것처럼, 무용수는 자신의 몸이 누군가에 의해서만 춤을 행할 수 있는 것처럼 움직인다. 두 팔을 고정한 몸은 자유의지를 빼앗긴 듯하지만, 그로 하여금 오히려 신체성이 지닌 흐름과 굴곡은 강조되는 식이다. 차례로 이마·코·귀·정수리로 중심점을 이동시키며 신체 분절을 360도로 회전하며 만드는 움직임이 흥미롭다. 장식이라곤 없는 간결하고 반복적인 리듬에 절도 있게 진행되는 무용수들의 움직임이 묘하게 흡인력을 일으킨다. 상상의 동물이지만 초자연적인 힘을 지닌 존재로 여겨지는 용을 상징하고 상징성을 부여한 것이 한국 관객에게도 꽤 매력적으로 다가온다.

중국 전통춤을 토대로 현대적인 작품을 선보이고 있는 홍콩무용단의 대표 레퍼토리인 〈24절기〉는 자연과의 영원한 교감을 주제로 한 대무용시Grand Dance Poem로, 2023년 초연했다. 농경사회를 기반으로 동양에서 공유하는 계절 구분법인 24절기는 자연과 함께하는 삶을 강조하는 우리의 태도와도 닮았다. 독특하게도 이 작품은 한국 예술가와의 협업으로 제작됐는데, 작곡가 김철환, 의상 디자이너 민천홍, 조명 디자이너 류백희가 참여했다. 무대에 펼쳐진 시청각적 풍경은 서사를 담고 있어서인지 익숙하면서도 한국춤과는 다른 기운을 내뿜는 춤사위가 인상적으로 다가온다. 사계절은 세계의 수많은 예술가에 의해 자주 활용되는 모티프지만, 이를 세분화한 24절기는 아시아권에서 활용할 수 있는 독특한 소재 아닐까. 서양의 발레 형식을 차용한 것은 같지만, 이들의 대무용시와 신무용 시기에 등장한 우리의 무용극이 어떻게 같고 또 다른지 견주어 보는 것도 흥미롭다. 국적과 인종, 언어를 불문하고 모두에게 통용되면서도 나만의 색깔을 띠는 것, 예술가가 자신의 뿌리를 기억하면서도 현시대와 공명하는 전략이 될 것이다.

아시아권 무용의 현재가 궁금하다면

타오 댄스 시어터 〈16&17〉
10월 16일과 17일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
홍콩댄스컴퍼니 〈24절기〉
10월 18일과 19일 국립국악원 예악당

함께 만들어갑니다 문화+서울

EPILOGUE

좁은 길 하나 건너면 청계천이 흐르는 회사에
다닌 지 15년입니다. 이 물길이 축제의 장소가 될 수
있다니... 청계광장에서 97까지 5.2킬로미터를
걸다 보면 덩으로 [문화+서울]을 매월 발간하는
'서울문화재단'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
같이 막걸리 한잔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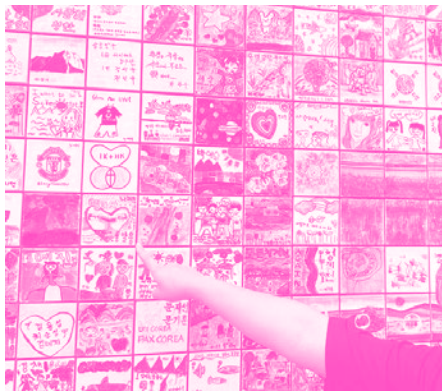
이주영 서울문화재단 홍보마케팅팀장



CONTRIBUTOR

벌써 10월입니다. '가을 하늘 공활한데 높고 구름
없이'라는 가사가 절로 머릿 속에 떠오르는데요.
이렇게 좋은 나날과 어울리는 서울거리예술축제가
서울광장과 청계천에서 추석 연휴 동안 펼쳐집니다.
역시 가을엔 축제죠. 이를 위해 축제기획팀 직원
분들이 정말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바쁜
와중에도 틈틈이 좋은 원고를 작성해주신 두 팀의
담당자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덧붙이자면,
아트레킹 코스 중 3구간이 시작되는 황학교 아래에는
청계천 타일벽화가 있는데요. 그 타일 중 하나는 제가
20년 전에 그렸답니다. 묘한 기분이네요.)

나혜린 서울문화재단 홍보마케팅팀



EPILOGUE

도시 전체가 지붕 없는 공연장이 되는 가을. 비 오면
시무룩해져버려...

김태희 디자인이끼 에디터



주요 배포처

국립국악원 국립중앙도서관 금천예술공장 노들섬
대학로예술극장 문래예술공장 블루스퀘어 상명아트센터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서울남산국악당 서울도서관
서울무용센터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강북/서초/양천/
용산/은평 서울문화재단 본관/대학로센터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 서울시50플러스 남부/서부/
중부캠퍼스 서울시 자치구 문화재단 및 문화원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연극센터 서울연극창작센터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 시민청 신당창작아카데미
아르코미술관 연희문화창작촌 중랑아트갤러리 청년예술청
KT&G 상상마당 외

[문화+서울]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지는 무가지로
발간되므로 별도로 구독 요청이 불가합니다. 주요 배포처에
방문하시면 비치된 잡지를 무료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좀 더 나은 [문화+서울]을
만들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2025 서울생활예술 페스티벌

10. 11.(토) 노들섬

시민 예술가 | 500명 시민예술가와
함께하는 예술적 경험

토크콘서트 | 저속노화 정희원
x 브랜드 최 라르벳

특별 전시 | '니 얼굴' 작가 정은혜

작가능부마켓 | 문호리 리버마켓



SEOUL
MY SOUL

인문
서울
문화
재단

서울
문화
재단

서울어템페스타
SEOUL
AUTUMN
FESTA

